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보건

2013 JANUARY VOL.281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01

Special Report 스마트 시대와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HAPPY
FEELING 행복느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 넬슨 만델라





화제의 현장

안전점검의 날 200회 기념행사 편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날 시행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문경준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스페셜리포트

연말에 걸 맞는 정보가 쏙쏙 들어있는데다 자칫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송년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음주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연말 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들까지 정리되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더군다나 평소에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소개까지! 모든 세대가 두루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국진화 (전북 정읍시 고부농단길)

VOICE OF 독자의 소리 READER

〈안전보건〉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안전보건〉을 읽으신 후 느낀 소감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About 2012.12 -



중대재해사례

여러 가지 재해사례 덕분에 산업현장의 위험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규정 제시가 있어 자칫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파단강도, 허용하중 등 기술적인 내용도 좀 더 많이 실어주시면 근로자와 감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정호 (충남 아산시 둔포면)



테마스토리

기억을 영원으로 옮겨가는 습관, 메모에 대해 읽으면서 사소한 습관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기, 일지, 사소한 기록들로부터 인생의 자취를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구요. 새해에는 기록하는 습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서해운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Contents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안전보건 2013년 1월호 제25권 제1호(통권 281호)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백헌기

기획편집 교육미디어실

편집위원 박동기, 이지현, 박남규, 김일수, 김종윤, 김중호,
이주영, 유호진, 박태순, 김동열, 윤권일, 김익주

담당 김연지(agape0212@kosha.net) 032-5100-682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홈페이지 www.kosha.or.kr

제작 및 편집디자인 대통기획 02-516-3614

사진 e-cube 스튜디오

인쇄 두산동아(주) 안산공장 031-489-784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들은 각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간<안전보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미디어뱅크
WiSH'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January



독자의 소리

신년사

Issue & Focus

Special Report

스마트, 안전보건과 '통(通)' 하다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시대의 안전관리

- 사람 중심의 스마트 안전 강화

-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한 안전 활동을

- 나를 지키는 안전보건 에너지 '위기탈출 앱 시리즈'

03

06

08

10



Passion 열정의 현장

산재예방 달인

화제의 현장

KOSHA 포커스

무재해 실천일지

명예감독관 플러스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LG디스플레이(주) 구미공장 23단지 서강녕 보건관리자

MBC 프로그램과 함께한 '조심조심 코리아'

2013 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추진 계획

두산건설(주) 군포 당동 2지구 A2블록 공동주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좌담회

공정 안전 ③

22

26

30

36

40

44



22



Happiness 행복 발전소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 사업장

생활안전 플러스

건강 365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Theme Keyword

Theme Touch

Theme Plus

파주전기차(주)

겨울철 전기 제품 화재 · 화상 사고 요주의!

유행성 독감 · 눈병 요주의!

두통예방 스트레칭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

도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작심삼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

50

54

56

58

60

62

64



26



Energy 안전보건 에너지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임업 중대재해사례

안전보건 Focus

지구촌 안전보건

KOSHA NEWS

안전인증 현황

KOSHA info & 독자퀴즈

부동액 섞인 물로 끓인 라면 먹고 사망

인화성 액체가 묻은 옷에 불이 붙어 사망

벌목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사망

동절기 넘어짐 · 미끄러짐 재해예방 대책

68

70

72

74

76

78

80

82



3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희망찬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새해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장기화돼가는 경기침체와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의 환경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공단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 공단이 중점 추진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법령 규제 방식의 산재예방 활동은 급변하는 기술과 작업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주 자율방식의 산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단에서는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기본 인프라를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안전보건



관리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시스템 확보여부를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구축 등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시(適時)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통합 기술지원입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신규 및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적시 기술 지원이라는 새로운 재해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적시 기술지원을 통해 신규 설립사업장의 재해를 감소 및 재해발생 사업장의 재해 재발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해에도 적시 기술지원 사업이 계속 됩니다. 공단은 사업 내용을 더욱 내실화하여 사업장이 필요로 할 때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재해예방활동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공단에서 선정한 타겟 부분 이외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사업대상 선정을 확대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창고·통신업 및 임업·광업·농업·어업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중규모 제조 사업장과 5억 이상 50억 미만 건설현장, 지게차·천장크레인 등의 위험기계 등에 대해서도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패트롤 지도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화재·폭발·누출 등의 대형사고와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적용대상 확대,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일터에서의 건강한 근로자는 기업의 성장과 생산 활동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건강(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 양상은 고농도·급성독성노출에서 저농도·만성독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직업성 질환은 사전에 예측되어야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시설을 증축해 국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각종 독성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직업병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취약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재해예방 인프라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요율제와 연계한 사업주 교육, 이론 및 실무과정의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세부업종별로 재해사례, 예방대책 중심의 미디어 개발·보급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산재분석을 통해 선정된 타겟을 주제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과 On-line, SNS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사업을 강화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지난해 유난히 빈발했던 각종사고는 이제 '위기관리'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터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와 우리사회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연계하고, 근로자는 개인과 기업, 우리사회 번영이 안전보건의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안전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2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 헌 기

‘서비스업 안전보건 표준 마련’

대형유통업 ·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발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12월 21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형유통업 및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앞두고 대형마트 등의 대형유통업과, 오피스 · 아파트 등 건물관리업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안전보건 표준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세부 업종별 평가대상, 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한 사항이다.

위험성 평가는 전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시 2012-104호(2012.9.26)에 의거, 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은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대형유통업과 건물관리업의 표준모델을 개발해 왔다. 공단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 및 건물관리업 본사, 관련 직능단체 등에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동종업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표준 위험성평가 모델 (건물 관리업)

2012. 12

안전보건공단

표준 위험성평가 모델 (대형 유통업)

2012. 12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도 힐링 바람’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9개 우수사업장 인증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 힐링(healing)이 산업현장에도 확산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산업현장의 건강증진활동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천안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이란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단의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단이 2011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실시해온 이 제도는 본격 실시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번 9개 인증사업장을 포함해 총 22개 사업장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천안사업장의 경우 ‘마음의 소리 상담실’을 설치해 전문 심리상담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고, 2명의 전문강사가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및 지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을 돕고 있다.

이밖에 지하철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직원에까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는 LG이노텍 제2공장, 전 직원을 대상의 생활댄스로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는 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 금연율 100%를 달성한 포스코애펙 등이 이번에 인증을 받았다.

인증 받은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정부포상 후보자 우선 추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보건분야 감독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는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모두 5,655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으며, 이 중 30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공단 직업건강실 관계자는 “최근 산업현장의 근로자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작업 관련성 산업재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건강증진 사업장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기업 생산성도 높이고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개 인증사업장 : 삼성전자서비스(주),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천안사업장, 서울메트로, LG이노텍 제2공장, (의)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 (주)포스코애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한국지역난방공사

Focus

SMART



스마트, 안전보건 ‘通(통)’ 하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스마트 시대는 우리 생활을 바꿔놓고 있다. 과거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스마트한 생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 시대가 안전보건과 사업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전관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이번호 Special Report에서는 스마트 시대가 가져 올 미래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현재 공단에서 개발해 산업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본다.

SAFETY & HEALTH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시대의 안전관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 시대가 안전보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제적 위험관리, 신속한 현장 대응 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스마트 IT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안전관리 전략이다. 글 이현태¹ 목원대학교 교수,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장

세상을 바꾸는 소셜미디어의 힘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어난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소셜미디어의 이용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문화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소셜미디어 대표기업인 페이스북의 기업가치가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적으로도 소셜미디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특히 선거 캠페인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렇듯 소셜미디어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소셜미디어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안전관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향이고 실시간적인 정보교환 특성이다. 라디오와 TV 같은 대중매체들은 사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은 충실하지만, 피해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전달이 어렵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둘째, 현장성과 이동성이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 및 사고 현장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은 재난 및 사고의 현장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특히, 현장성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되어 안전관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정보공유와 '집단지성(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해 얻어진 집단적 능력)'의 특성이다. 소셜미디어는 대중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다.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소셜미디어를 통한 협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질문에 답하고, 관심 정보를 리트윗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안전관리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셜미디어는 안전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안전관리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 정보의 제공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나 지자체, 안전 관련 기관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요령 및 지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은 안전해야 할 당사자가 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즉, 국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생활에서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위험 요소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감성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② 조기 경고 및 정보 수단

소셜미디어는 비상정보 및 경고의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개인별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구별하여 긴급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③ 위험과 사고 정보 수집 수단

소셜미디어는 재난 및 사고 피해 상황의 정확한 인식을 위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이동성은 물론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위치정보를 포함한 현장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할 때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중앙정부의 정보와 함께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④ 긴급 구조 및 대응을 위한 통신 수단

재난 상황에서 비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신 인프라 자체가 파괴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경우 119 신고 수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의 신고 접수와 피해지역의 긴급한 구조와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전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안전은 국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자연재해, 범죄, 환경오염 등 재난들이 대형화, 집중화되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국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시민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I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서비스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는 여러 재난 상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와 확산, 정보 과부하, 위기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도 양날의 칼이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면 미래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 진정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위기극복 사례]

일본 도호쿠 대지진에서 일본 네티즌들의 '집단지성'이 재난 속에서 빛을 발하였다.

일본의 트위터 관련 부가서비스 'Togetter' (<http://togetter.com>)에는 도호쿠 대지진과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지진에 대한 대처방법, 환자응급조치, 무료개발 대피소 정리, 귀가 방법 안내, 피난 시 영유아 양육법, 장애인들의 대피 유의 사항까지 지진 당사자들이 작성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이는 지진 직후에 이 사이트의 올라온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제공된 서비스이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 생활안전 강화

안전관리 법령은 이제 시설물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심기오¹ 국립방재연구원 박사

사람 중심의 생활안전관리로의 변화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경제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안전부문에 대한 투자 또한 시설물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법률 또한 안전에 대해서는 주로 시설물 위주의 안전개념으로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수준이나 인식도 높아졌다. 시설물의 안전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면서, 국민 개인 차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물 중심의 안전관리 개념에서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개념으로 변화를 꾀하고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을 습관화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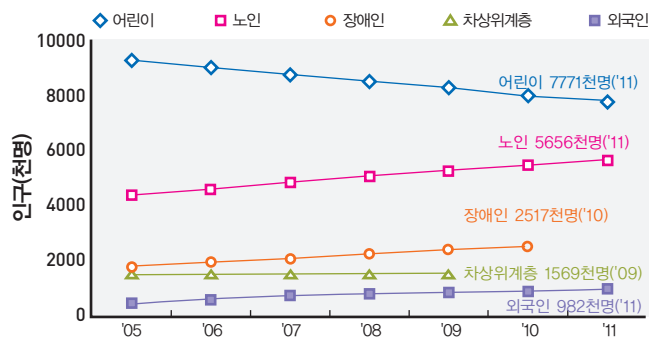
◎ 사람중심의 생활안전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활안전의 개념이 필요하다. 여기서 생활안전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뜻한다.

사람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사건 등이 생활안전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같이 다양한 생활안전에 대한 주체는 사람이므로 생활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안전약자에 대한 연도별 인구변화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차상위 계층 및 외국인을 안전약자의 범주로

봤을 때, 최근의 우리나라 인구특성을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어린이는 급격히 감소, 노인은 급격히 증가 및 장애인과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보호와 급격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노인에 대한 보호가 현실적으로 필요함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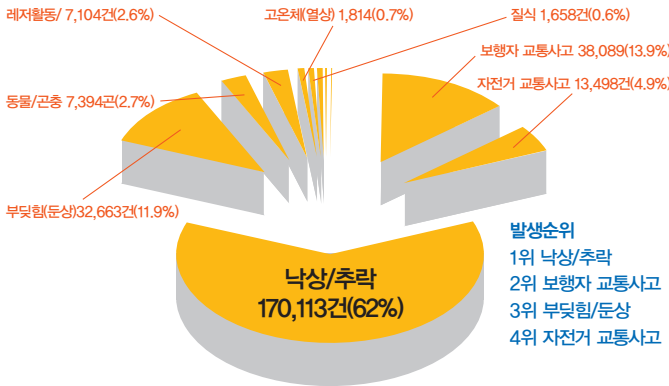
<그림1> 2011년 안전약자 인구변화 추세 [출처 : 통계청]

◎ 생활안전사고의 발생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관련 사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집계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각기 기관이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중복확인 및 통합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반 국민들이 사고발생시 많이 활용하고 있는 119 구조·구급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에 의한 통계를 살펴보았다.

구조대에 의한 구급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인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세~80세까지의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대에 의해 집계된 2011년도 발생건수 중 11종류의 안전사고를 조사해본 결과 낙상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62%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낙상·추락 방지를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1년 안전사고 발생현황 [출처 : 소방방재청]

◎ 낙상 및 추락 방지를 위한 연구 필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비롯한 안전약자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노인들에 있어서 미끄러짐 및 추락 등은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기술개발 기획연구, 2012,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

생활안전 스마트 안전강화 과제

1. 보행자 안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① 걷는 길 표준안전지수 개발

- 보행안전지수 개발 및 보행안전도 평가시스템 구축
- 전국 걷는 길 현황파악 및 안전관리 실태 분석
- 걷는 길 보행안전 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기관 설립
- 보행안전도 점검기법 및 위험지역 관리프로그램 개발

② 재난유형별 보행안전행상을 위한 제품 개발

- 신종 보행안전 사고사례분석 및 취약성 분석
- 야간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기술 및 장비 개발
- 긴급상황에 대비한 보행안전확보 기술 개발
- 악천후 시의 안전보행로 알리미 시스템 개발

2. 가정 안전사고 예방기술 개발

① 가정 안전 알리미 로봇 개발

- 안전감시를 위한 원보드 다중 위험감지 센서 개발
- 청소 및 사고감지 병행을 위한 로봇 주행기술 개발

② 담배 흡입시간 초과 시 자동 불 꺼짐 장치 개발

- 담뱃불 외부 전이 방지를 위한 담뱃잎 포장재 개발
- 투명연기 발생 담배 개발

③ 재난약자 신체특성 분석을 통한 넘어짐 보호기술

- 재난약자 미끄러짐 방지 친환경 바닥재 기술 개발
- 재난약자 가정 내 무장애 디자인 적용 기술개발

3. 안전문화 및 제도화

①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안전사고 감지기술 개발

- 생활안전사고 유발 행동 패턴 분석 및 프로세스 개발
- 생활안전사고 사전 알리미 기술 개발

② 상가 밀집지역의 유류 가스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 다량 취급 상가의 누출, 화재 등 폭발방지대책
- 지역단위 시설의 위험성 평가 및 사고 예측기술 개발

③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생활안전 인증제도 개발

- 야외활동(보행자길, 캠프장, 물놀이지역) 인증제도 개발
-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개발

4. 안전사고 예방

① 인명구조용 물놀이 장치 성능개선 연구

- 인체 장식용품의 사고대비 수면부상기능 제품 개발
- 어린이 물놀이 안전향상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기준 연구

② 한국형 성폭행 발생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방안

- 지능형 CCTV 인지기술을 활용한 성폭행 예방방안

③ 독버섯 중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폰 앱 개발

- 독버섯(나물 등) 정보 DB 구축 등

④ 생활안전사고 예방 알리미 개발

- 생활안전 정보 제공 앱 개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한 안전 활동을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위기탈출 앱 시리즈'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위기탈출 앱 시리즈를 사용해 본 근로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고 속보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활용 가능

위기탈출 사고포착 애플리케이션

두산건설(주) 군포 당동2지구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이수연 과장은 위기탈출 사고포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결과 “전국의 재해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조회 시 사고사례 전파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 제보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고 상황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즉시 등록하고 사고 위치 정보까지 한 번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업종별로 발발하는 주요 사고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 교육 시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안전 상황이나 불안전 행동 등 위험 요인을 안전관리부서 및 동료 근로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현장 안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신속한 응급조치 가능해져

위기탈출 응급조치 애플리케이션

위기탈출 응급조치를 사용해 본 LG디스플레이(주) 구미공장 FA장비 23반 이정원 주임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에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다”며 활용의 편의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았다.

특히,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포함한 지혈법, 부목대는 법, 환자 운반 법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법은 물론 감전, 일반 화상, 밀폐 공간 질식, 가스 중독 등 다양한 사고 유형별 대처법까지 상세히 제공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질병 관련 대처법과 화재현장 탈출, 삼폐인 병마개 사고 등 일반 사고 상식도 함께 제공해 일상에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응급조치 등 주의를 요하는 상황을 동시에 제공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로 근로자에 큰 도움

위기탈출 앱 시리즈

GS건설 광고신도시 에듀타운 주택사업 현장 김용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 근로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다”며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만큼 꽤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단한 교육 자료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LIG빅스원 구미생산본부 이미라 매니저는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써보니 외부에서도 요모조모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어 편리하다”며 “바이오리듬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어 그날그날 작업 진행을 조절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경동실업 김성일 실장은 “평소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이 힘들었고, 작업에도 위험요소가 많았다”며 “공단에서 개발한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니 작업지시뿐만 아니라 평상시 의사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꼭 필요한 앱

안전보건공단 창립 25주년 기념 ‘안전보건 이벤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코엑스 이벤트코트에서 일반인들에게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안전보건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기탈출 앱 시리즈’를 개발·보급해 온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이벤트를 통해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앱 3종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벤트는 크게 스마트폰 앱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소개행사’와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은 시민들에게 게임을 통해 선물을 나눠주는 ‘다운로드 행사’, 내려 받은 스마트폰 앱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설문행사’로 구성됐다. 이벤트에는 코엑스 내부 근로자를 포함, 학생·가정주부 등 모두 1,200여 명이 참여해 1천 건 이상의 앱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한주(27세, 사무직) 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할 것 같다”면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재형(23세, 학생) 씨는 “평소 알기 힘들었던 안전보건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가족에게 꼭 알려줘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기탈출 앱 시리즈 다운받기 현장 설문 이벤트 당첨자

뉴아이패드 : 김지혜(경기도 하남시)

디지털카메라 : 엄지은(인천시 중구)

수건 등 위생세트 : 650명(공단 홈페이지 공지)

나를 지키는 안전보건 에너지 '위기탈출 앱 시리즈'

안전보건공단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맞춰 '위기탈출 앱 시리즈'를 제작, 개인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예방 및 대처법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 현장 제보는 물론 신속한 응급조치까지 '위기탈출 앱 시리즈'로 스마트하게 안전을 완성해보자.

유용한 안전보건정보 여기 다 있네

안전보건 통합 애플리케이션

'안전보건공단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안전보건 정보를 총망라한 앱이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들은 모든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층 더 빨라진 QR코드 리더기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안전보건 미디어 서재

위기탈출 지식충전소

'위기탈출 지식충전소' 앱은 매월 책자·리플렛·동영상·카툰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안전보건 미디어를 이용해 모바일 상에서 자신만의 서재를 구성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필수품 응급조치 앱

위기탈출 응급조치

'위기탈출 응급조치' 앱은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응급상황 대처법을 담았다. 기존의 응급조치 정보를 다룬 앱과는 달리 '위기탈출 응급조치' 앱은 다양한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삽화로 제시한다.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용자들의 응급조치 의문사항을 해결해주며, 생활 속 잘못된 운동법 등 재미있는 응급 상식을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아는 것이 힘

MSDS 요약정보

'MSDS 요약정보' 앱은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14,787건의 위험성과 응급조치 및 누출시 조치사항 등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한 편리한 검색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힘들지 않아요~

위기탈출 다국어 회화

‘위기탈출 다국어 회화’ 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준다. 사업장 사용빈도가 높은 300여개의 문장을 10개의 언어로 통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성지원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재 10국가 언어로 지원되고 있으며 3개 언어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바이오리듬으로 안전과 건강 지키세요

위기탈출 바이오리듬

사용자의 당일 바이오리듬과 함께 ‘오늘의 안전보건 포인트’로 건강과 재해관련 위험요인에 따라 3~5가지 예방대책을 제시해 준다. 건강 정보로는 총 19가지 사례에 대한 38개의 예방대책이, 재해 정보로는 10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170여개의 예방대책이 DB화되어 있다. 그밖에 안전공부방, 위험신호 알람 등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



앗! 내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위기탈출 사고포착

‘위기탈출 사고포착’ 앱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산업사고 속보를 실시간으로 촬영·등록해 공유할 수 있다. 재해 상황을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같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동종재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재해정보 DB에서 업종별로 분류된 재해사례 등을 검색해 교육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만 해도 샘솟는 건강 에너지

체조송

‘체조송’ 앱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스트레칭의 습관화에 도움을 준다. 이 앱은 가수 ‘걸스데이’ 민아 양이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바른 자세 Song’ 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좋아요 Song’도 담겨 있다.



[위기탈출 앱 시리즈 사용법]

‘위기탈출 앱 시리즈’는 안드로이드폰·아이폰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앱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관련 문의사항 032-510-0539

월간「안전보건」 구독 신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OK!

월간「안전보건」구독시스템 구축에 따른 새로운 독자리스트 구성에 따라 구독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년 1월호부터 월간지 발송이 중지됩니다. * 2012년 5월호~12월호 별지로 공지 참조



① 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월간 안전보건 배너를 클릭하세요



② [구독 신청]화면에서 '사업장 검색'을 클릭



③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사업장 검색 및 선택



④ '사업장 내 상세 배송지'를 입력하고 '수령자'를 선택한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구독 신청 완료! [주소지 변경/해지]도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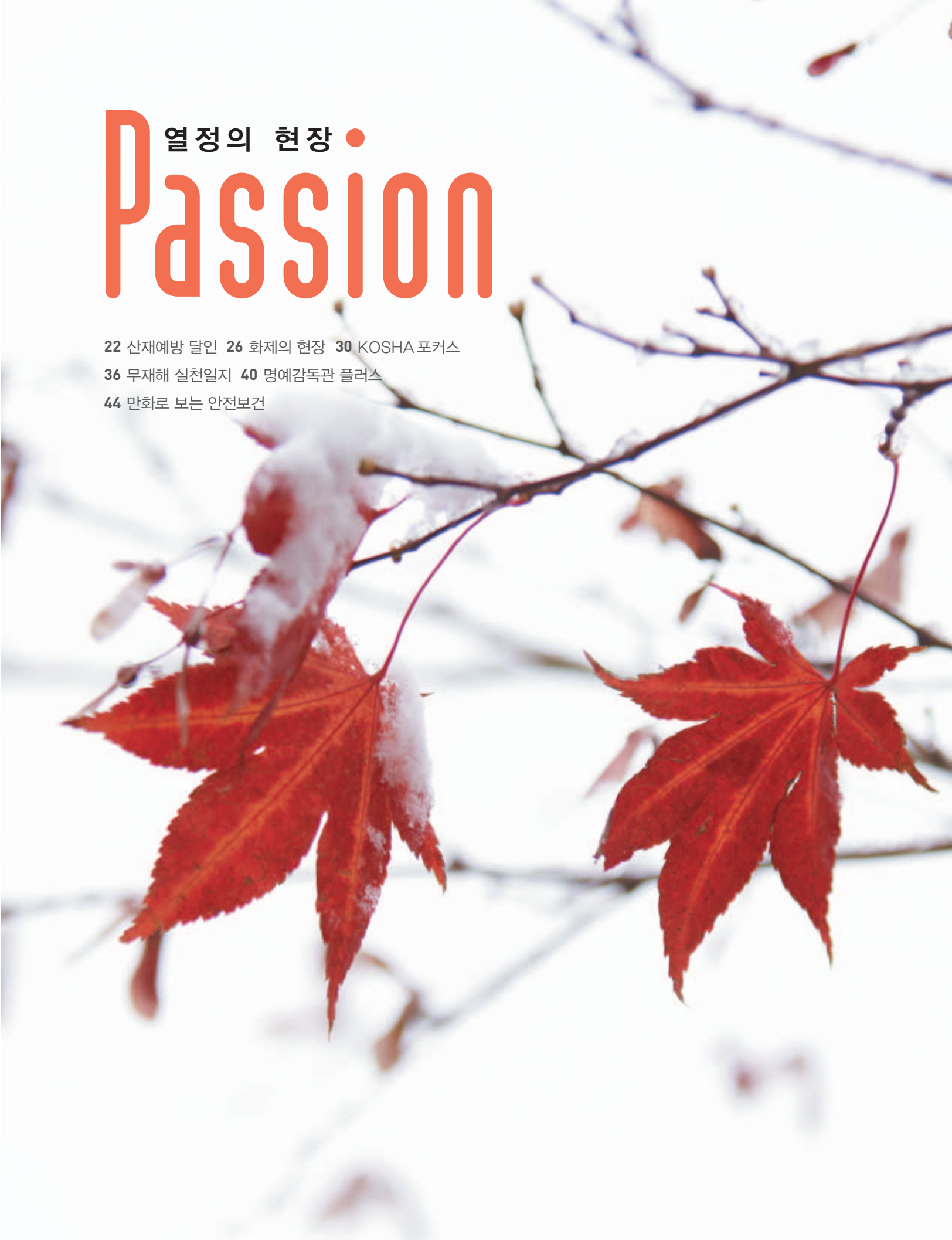
* 월간「안전보건」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 전문 월간지로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열정의 현장 • Passion

22 산재예방 달인 26 화제의 현장 30 KOSHA 포커스

36 무재해 실천일지 40 명예감독관 플러스

44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열정의 현장 | 산재예방 달인

글 이환길 사진 김홍진 | B612 스튜디오



따뜻한 애정으로 다독이는 건강 정성의 교육으로 예방하는 재해

LG디스플레이(주) 구미공장 23단지 서강녕 보건관리자

누나의 마음으로 언니의 손길로 현장 근로자 2,500명의 건강을 매만진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정성으로 LG디스플레이(주) 구미공장의 건강을 돌보고 가르친다.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현장의 건강 한눈에

각종 리서치 기관에서 실시하는 새해 소망 관련 설문에서 매년 '건강'에 관한 답변이 일 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돈이나 명예, 그 외에 어떠한 것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증거다. 제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희망도, 열정도, 행복도 사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삶을 가장 힘차게 복돋우는 것은 결국 건강이다. 건강을 돌보는 것이 곧 꿈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기초로 근로자는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국가의 미래는 튼튼히 다져지게 된다.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23단지의 서강녕 보건관리자는 16년 넘게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근로자들의 희망을 지켜가고 있다. 1995년 9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이 설립되고 1년 반 후에 보건관리자로 입사했으니, 입사 최고참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큰누나·큰언니나 다름없다. 상처는 다 아물었는지, 남몰래 끄꿍 앓지나 않는지, 담배는 끊었는지, 운동은 잘하고 있는지 등 건강관리실을 찾아오는 한 명 한 명에게 애정 가득한 잔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근무 중인 23단지의 근로자만 2,500여 명이나 되는지라 사실 꼼꼼한 관리가 쉽지는 않다. 때문에 서강녕 보건관리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직무별 유해인자 기준의 건강관리를 비롯해 인사발령과 연계한 배치 전후의 검진 안내, 건강검진 예약, 검진 결과 분석,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직무별 등급별 유소전자 관리 정보 등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정보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실 방문 이력을 시스템화해 근로자별 기존 상담 내용과 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어떤 상담이 이뤄졌고, 현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어 지속적인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이 근로자의 건강 내비게이션이라면, 서강녕 보건관리자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근로자 건강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다. 운전대를 잡듯 오늘도 근로자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다독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건강의 길을 이야기한다.



끈기 있는 정성으로 근로자 건강 완성

근로자 건강 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 역시 쉴 틈 없이 이어왔다. 특히, 비만 클리닉은 가장 높은 성과를 자랑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비만 펀드'를 중심으로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일정 금액을 펀드 형식으로 예치하고, 성공한 인원에만 펀드 총액을 상금으로 분배한다. 지난 2012년에는 13명이 비만 펀드에 참가했으며, 100% 전원 성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달콤한 펀드 상금이 훌륭한 동기가 되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건관리자의 끈질기고 섬세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100% 성공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뇌심혈관 질환자 등 유소견자를 우선으로 관리했으며, 비만 클리닉 3개월간 참가자들은 1주일에 최소 2번씩 건강관리실을 방문해 체지방 측정과 상담을 받아야 했다. 3개월 동안 1인 평균 20번가량의 체지방 측정을 시행했더니, 정말이지 보통 정성이 아니다. 또한, 상담 시마다 식사량과 운동량을 점검·지도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했다.

비만 클리닉의 건강의지는 사내 영양 관리로도 이어진다. 영양사와 함께 일주일마다 식단 메뉴별 칼로리 표를 만들어 식당에 게시하고, 근로자 대상 영양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비만 관리와

함께 뇌심혈관 질환의 대표적 원인인 '음주'를 제어하기 위해 절주 캠페인도 확장해갈 계획이다. 옐로카드, 레드카드 등 등급별 절주 카드를 제작해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지나친 음주의 위험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금연클리닉도 서강병원 보건관리자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건강 증진 활동이다. 비만 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도 펀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차후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참가자를 불시에 불러내 소변검사를 한다. 또한, 유소견자 중 필수 금연자를 따로 선정해 365일 내내 밀착 관리한다. 금연파이프와 은단 등을 나누며 금연 성공에의 의지를 함께 다진다.

건강현장 실현을 위한 건강교육 실천

이 외에도 종합 검진 특이 사항 관리를 비롯해 간염보균자 관리, 심장질환자 관리, 청력 이상자 관리, 내당능 장애 관리, 유기용제 사용자 간기능 관리 등 고위험군 질환에 대한 사전 관리를 진행하고, 질환 예방 실현을 위한 현장 건강 교육을 틈틈이 시행한다. 현장 건강 교육은 근로자 혁신 교육 시간 중 1시간씩을 따로 배정받아 진행해 왔지만,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뇌심혈관, 근골격, 성교육, 조직별 건강 상태 등 다양한 건강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 예방 교육은 뇌심혈관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별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모두 참여시킨다.

하복부 초음파, 자궁경부암 예방 등 여성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 특히 임신부에 대한 관리는 가장 우선이었다. 인사팀으로부터 임신부 리스트를 받은 후, 임신부의 직무와 해당 유해물질을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임신부에 해가 가는 공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공정 이동을 조치하고, 또한 되도록 편히 앉아 일할 수 있는 좌식 업무를 제공한다. 물론, 건강하게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신부를 위한 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처럼 가족을 돌보듯 애정과 책임으로 근로자 건강의 시작과 끝을 돌보는 서강냉 보건관리자. 지난 16년간 지속되어 온 그녀의 오랜 정성으로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은 오늘도 건강과 희망을 지켜가고 있다. 올해도 새해 떡국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애정을 근로자에게 전할 것을 약속한다.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풍부한 건강지식을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산업보건교육의 달인으로서 지나온 시간과 노력에 부끄럽지 않을 보건관리자가 되겠습니다.” 🌸



| 산재예방 달인의 현장 건강 돌보기 셋 |



①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로 종합적인 건강관리!

직무별 유해인자 관리, 유소견자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인사발령과 연계한 검진 안내, 종합검진 예약 및 결과, 건강관리실 방문 이력 등 등 근로자별 모든 건강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근로자별 지속적인 맞춤 관리를 가능케 했다.



② 끈질긴 정성으로 비만 클리닉 100% 성공!

3개월간 1주에 최소 2번씩은 비만클리닉 참가자의 체지방 측정과 상담을 실시했고, 상담 때마다 식사량과 운동량을 점검하며 그에 따른 변화를 빠짐없이 체크했다. 그 결과 13명의 참가자 모두 비만 탈출에 성공. 진심 어린 정성이 일군 모범 성과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③ 사업장 내 임신부 건강 우선 보호!

임산부의 직무와 해당 공정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임산부 건강에 해를 끼치는 공정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공정 이동을 진행한다. 또한, 공정 시에는 좌식 업무 제공으로 업무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틈틈이 임산부 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열정의 현장 | 화제의 현장

글 이환길 사진 김홍진 'B612 스튜디오'



MBC 프로그램과 함께한 **조심조심 코리아!**

MBC 최강연승 퀴즈쇼 Q · 세바퀴 · 무한도전 녹화현장 속으로

조심조심 코리아가 MBC 프로그램에 '뒀다'. 일요일 오후 일산 MBC 드림센터에 모여든 안전보건공단 신입직원들은 <최강연승 퀴즈쇼 Q>에 출연해 지혜와 재치를 뽐냈고, <세바퀴>에는 연예인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으며, <무한도전> 멤버들은 '조심조심 코리아!'를 외쳤다. '조심조심 코리아'와 함께 한 흥미진진했던 MBC 프로그램 녹화 현장 속으로 따라가 보자.



안전보건공단 신입들 MBC에 뜨다!

〈최강연승 퀴즈쇼 Q〉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 기관입니다.”

“조심조심 코리아는 과거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 이룩한 고속 성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심조심을 바탕으로 안전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일요일 오후, 일산 MBC 드림센터 <최강연승 퀴즈쇼 Q> 녹화장에 공단 신입직원 6명이 ‘떴다’. TV에 처음 출연하기에 설렘 반 걱정 반의 표정이었지만, 이들은 가슴에 ‘조심조심 코리아’가 새겨진 티셔츠를 색깔별로 맞춰 입고, 신입사원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녹화에 임했다.



공단 이름을 걸고 나가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지난 방송을 모니터하며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개인기 준비도 했지만, 결국 5단계에서 전원 탈락이라는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다들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공단 대표로 나가 방송에서 공단 소개도 하고, 조심조심 코리아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탈락의 순간에도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공단의 신입직원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보건공단 인이라는 자부심은 한층 두터워지고,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본다.

Mini Interview 1

| 퀴즈에 도전한 신입사원의 열정으로 |



사진 왼쪽부터 곽옥동, 박재오, 한솔, 최도림, 최윤정, 이우창

“앞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공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도록 노력할 것이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옥동(서울북부지도원 교육서비스팀)

“제가 속해 있는 팀에 도움이 되면서 나아가서는 공단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박재오(직업건강연구센터 안전보건연구원)

“방송에서 똑똑한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어진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목소리 나는 전문가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한솔(경인지역본부 전문기술지원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와 일 모두 열심히 해서 안전보건전문인이 되어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이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최도림(경인지역본부 전문기술지원팀)

“어느 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자랑스러운 공단 인이 될 수 있도록 자질과 소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공단의 대표, 공단의 마스코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단을 빛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윤정(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대한민국 재해율이 0.65% 밑으로 줄어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창(서울북부지도원 교육서비스팀)

퀴즈도 맞추고 안전보건 지식도 알고

〈세바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모두들 사고에 유의하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특집으로 꾸며진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 녹화현장. MC 박미선과 이휘재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내고 패널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이라는 문제에 패널들은 정답을 외치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2조부터 시작한 금액은 계속된 오답에 점점 올라갔고, 드디어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18조원으로 정답을 맞췄다. 다들 엄청난 손실액에 놀라는 표정이었다.



끝이어 18조원이면 연봉 2천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90여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MC 박미선 씨의 설명이 이어졌고, 자막으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산업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소개됐다. 재해의 위험과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다치는 분이 없는 조심조심 코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2

| 삶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한 해 되세요~ |

— 개그우먼 김지선 —



1. 평소 안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방송하면서 세트 때문에 발등을 몇 바늘 정도 레맨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뮤지컬도 하는 등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방송을 한동안 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가 생겼죠.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미리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오빠도 식당에서 갈비탕이 쏟아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바쁘니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멀쩡하던 사람이 다치는 일은 정말 한 순간입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 독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람들이 순간순간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도전과 함께 한 조심조심 코리아~

〈무한도전〉

무한도전에도 조심조심 코리아가 등장했다. 2013년 달력배송 국내 편 녹화에 등장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길이 입은 옷에 조심조심 코리아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던 것. 이들은 조심조심 코리아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달력을 배송하며 국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물했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안전보건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조심조심 코리아’가 되기를 기원했다.

2주 동안 MBC 프로그램과 함께한 ‘안전보건공단’과 ‘조심조심 코리아’. MBC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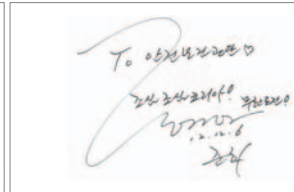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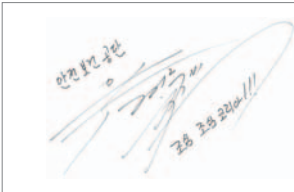


MBC 프로그램 방영일

최강연승 퀴즈쇼 Q : 2012년 12월 14일

세바퀴 : 2012년 12월 22일

무한도전 : 2012년 12월 22일



Mini Interview 3

| 다치지 않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 개그맨 서경석 —



1. 몇 년 전 안전보건 홍보대사로 활동하셨는데 느끼셨던 소감이 있다면?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연이 되어 공단의 홍보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서 주어진 환경을 바꿔 나갈 필요도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홍보대사를 맡아서 나름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신인 때 맨발로 개그를 하다가 유리 파편이 발에 박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인 때부터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경험한 셈이죠. 수많은 현장에서 조금만 조심하고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준다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치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피야 하겠습니다.

2. 독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날씨도 춥고 경제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재해까지 입는다면 정말 희망이 없어지겠죠. 건강해야만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조심해서 적어도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 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추진 계획

2013년 새해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 건설공사 규모 특성에 적합한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지원,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지원 등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재해예방을 펼칠 예정이다. 2013년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



〈2013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 ①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 기술지도의 적시성 유지, 민간에 의한 재해예방활동 정착 유도
- ② 화재 · 폭발 · 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 대응 체계 구축
- ③ 유해 · 위험기계 및 설비 사전 위험성 평가 전문기술 제고

주요 사업소개

① 재해발생사업장 적시기술지도

50인 미만 재해발생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발생 직후 방문 기술지도 통해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 재발방지 위한 대책수립 지원

〈주요내용〉

- 50인 미만 재해발생 사업장 15,000개소
- 지역별 우선 지원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유해 · 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
-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보자료 제공 등 간접지원 실시

②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노 · 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위험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 · 보급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동 제도 활성화

〈지원내용〉

- 인정심사 30,000개소(컨설팅 10,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On Line, KRAS)을 통하여 표준 위험성평가, 가상체험프로그램, 사례집 등을 제공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혜택을 부여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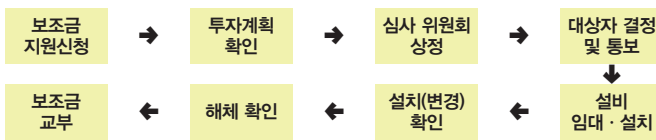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 · 위험요인 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추락재해 예방시설 지원
지원대상 (50인 미만)	▶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 건설업(10억원 미만 건설현장)
지원조건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평가 시 제기 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시스템비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 한 안전시설
최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2,000만원*까지 소요비용의 50% 지원 * 10인미만 사업장은 70% 지원(건설업 제외) ** 건설업은 강관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 설치에 따른 차액(임차 및 설치·해체 비용) 및 부대비용 지원	1,000만원*까지

* 최대 지원금액은 고용증가 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인원수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④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

〈지원내용〉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⑤ 신규사업장 재해예방기반 구축지도

50인 미만 제조업 신규설립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업초기 단계부터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주요내용〉

- 방문지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종합패키지(기술+재정+안전보건 매뉴얼, 안전보건 교육)를 지원하고, 간접지원 대상은 안전보건정보자료를 우편으로 발송

⑥ 안전인증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해 제조·설치 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주요내용〉

-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 안전성 확인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⑦ 안전검사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기적(6개월~2년)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의한 재해를 예방

〈주요내용〉

유해·위험기계 사용 중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⑧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설비·기계에 대하여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 개시전 사전 안전성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및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주요내용〉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토록 하여 화학공장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주요내용〉

- 제출 및 심사·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사업주는 12개 항목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안전공단이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고용부에서 매 4년 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등급(P,S,M+,M-)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관리 실시
- 전국 5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예방센터	소재지	주 소	관할구역
수도권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지역
충청권	대산	충남 당진시 수정동 999	대전, 충청남북도지역
호남권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24	광주, 전라남북도, 제주도 지역
대경권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번지	대구, 경상북도지역
동남권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54	부산, 울산, 경상남도지역

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안전보건 수준이 일정이상인 사업장에 KOSHA 18001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주요내용〉

-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실비지원 추진
-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사후심사 실시

직업건강



〈2013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① 산업보건분야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 개별적·전문적 산업보건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보급(화학물질, 소음, 분진)

② 『Top 4 직업병예방 프로젝트』 추진

- 사망, 직업성 암 등 긴박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선제적·포괄적 대응 예방시스템 구축

③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

- 고위험 업종·직종별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④ 산업보건 인프라 체계적 관리

- 측정기관·검진기관·석면업체 평가를 통한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 근로자 건강센터(2012년 5개소 → 2013년 10개소) 전국적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주요 사업소개

①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위험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동 제도 활성화

〈지원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기법 컨설팅 및 보급
- 유해인자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을 중심으로 지원

〈신청방법〉

- 사업장에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

② Top 4 직업병 예방 프로젝트〈유해인자 특별관리 중점지원〉

고위험 유해인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직업병 사전 예방기능 강화

그룹 1 : 특별관리물질(6종) 및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취급사업장

그룹 2 : 사망에 이르는 급성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및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

그룹 3 : 방사선 노출 취약직종 보유 사업장

그룹 4 : 사각지대 및 미확인 유해인자 취급사업장

〈주요내용〉

- 특별관리물질(9종)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DB 구축)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 9종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안티몬, 카드뮴, 크롬(6가), 산화에틸렌

- 급성중독물질(DMF, TCE, MC) 및 허용기준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별 산업보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직업병 위험정보(Alert)발령 및 예방대책 정보 전파, 종합 패키지(Package) 지원 및 제도적 건강보호방안 마련

* 종합 패키지 지원 : 유해성 정보제공 및 교육, 재정지원, 정밀평가, 작업환경관리대책 수립 등

- 취급사업장을 파악하여 취급·노출실태 평가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③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단체)를

대상으로 동 활동의 실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사주도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 촉진

〈지원내용〉

-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상담료 및 강사료, 기자재 임차료(u-Health Care 비용 포함), 장소 임차료, 재료비(금연보조제, 간이검사비), 홍보물 제작비 등 작업관련성질환예방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

〈지원방법〉

- 사업장 단독추진형, 모기업-협력업체형, 유사업종 연합형, 지역연합형 등 다양한 추진모델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한도

구분	50명 미만	50명~300명 미만	300명 이상
금액(만원)	160	700	2,000

* 300명 이상은 사업장 연합형(지역, 업종)인 경우에만 해당

* 연속하여 지원받은 경우, 총 지원기한은 3년(3회)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종합지원(민간위탁 보건관리 지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 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 기술을 지원

〈지원내용〉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중 업무상질병 발생우려 사업장을 위생 및 간호분야 전문요원이 년 3회(평균)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사업장 전반의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직접 방문지도

〈지원방법〉

-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공단과 계약된 보건관리 대행기관에서 직접 방문지원

⑤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 개선지원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종 등 위험군을 선정하고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인간공학적 개선 지원, 자율 예방관리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올바른 행동변화 실천 유도를 위한 작업수칙 지도 등의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지원내용〉

- 작업분석 정밀평가도구를 활용한 정밀 작업분석
- 사업장 요청 또는 필요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기법 지도, 자율 예방관리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지원방법〉

-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후 보고서 송부

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보건관리가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 특검비용은 기관의 지급요청을 받아 적정성 심사(용역)후 수수료 지급
- 측정비용은 기관의 지급요청을 받아 적정성 심사(자체)후 수수료 지급

〈지원방법〉

- 사업장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측정/특검기관에서 측정/특검 실시 후 공단에 비용을 신청하면 적정성 심사 후 비용지원

⑦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 능력 및 보유인력 등의 질적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업체의 수준 향상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9호)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실시
- 평가 비대상 업체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석면해체·제거 표준 작업방법」개발 및 보급 및 교육 실시
-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⑧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포괄적인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주요내용〉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센터를 설치하여 직업병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등 근로자 중심의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근로자가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면 근로자 중심의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제공

건설재해예방



〈2013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① 건설공사 규모 특성에 적합한 재해예방지원(현장중심)

- 현장 기술지원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 「소규모현장 안전시설 개선」재정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현장 순찰 강화로 안전 풍토조성
- *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차액(1천만원한도) 지원
- 위험작업 시기 지정 및 적기 기술지원 체계 구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내실화
-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책사업 재해예방에 적시 대응

② 건설공사 참여자의 재해예방 역량강화(참여자 중심)

- 244개 자치단체별 건설재해 MAP을 매월 지속 보급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해예방 관심 촉진
-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 공표로 자율안전보건활동 촉진
-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지원
-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주요 사업소개

①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위험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동 제도 활성화

〈지원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기법 컨설팅 및 보급
- 유해인자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을 중심으로 지원

〈지원방법〉

- 120억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현장에서 일선기관에 접수
- 사업주(현장소장)가 일선기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체 공정의 일부를 선정, 현장과 공동으로 평가하고 인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

②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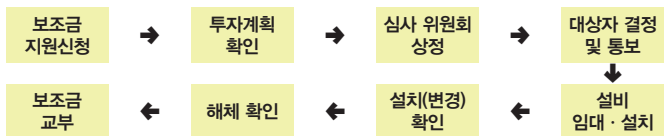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요인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임차비용 차액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시설 비용지원

- (지원 조건) 강관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 설치에 따른 차액(임차 및 설치·해체 비용) 및 부대비용 지원
- 지원 금액) 1개 현장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방법〉



③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건설업종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해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상시 순회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착공 전 철저한 안전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사와 지속적인 시공 중 안전계획 이행 여부 확인으로 근원적인 사전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⑤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 공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대 건설업체의 지난 1년간의 재해율을 산정, 해당 건설업체 및 정부부처 등에 통보하여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역할 강화

〈주요내용〉

- (재해현황) 건설업체에서 2012년도에 요양 또는 사망 승인된 건설업 재해
- (확정통보) 기관별 재해현황을 고용노동부 보고·확정 후 대상 업체 및 행정부처·조달청 등 통보

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대응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 공단은 교육기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서비스재해예방



〈2013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 ① 위험성평가제도 확산을 위한 공단 직접지원 강화
- ② 재해예방 네트워크 구축·확산 통한 민간 자율예방활동강화
- ③ 안전기준 준수문화 정착 및 인프라 확충

주요 사업소개

①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 내 위험 기계·기구, 설비 및 장소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스티커 부착 및 해당 업종별 재해예방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재해예방 지원

〈주요내용〉

- 공단의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이수한 민간단체 수행요원이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적인 위험요인 확인, 안전수칙 스티커 부착 및 재해예방 자료 지원
- 방문 사업장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사업장 내 주요 재해 기인물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지도

②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기술지원

서비스업 관련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서비스업 사업장 40,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고성 재해를 예방

〈주요내용〉

일정자격을 가진 직능단체 수행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후, '사업장 사고성 재해 위험성평가' 등 위험 시설물, 설비 중심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위주의 개선대책을 제시

③ 새내기사업장 재해예방기반 구축지원

50인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신규설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종합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기반 구축

〈지원내용〉

- 신규설립 사업장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공단 직원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는 직접지원을 실시하고, 그 외는 간접지원 실시
- 직접지원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종합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간접지원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자료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필요시 상담 실시

〈사업대상〉

2013년도 서비스업 신규설립 사업장

④ 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 재해예방 기술지원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고위험군 사업장에 안전보건 종합지원(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업무상 사고를 예방

〈지원내용〉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규모에 제한 없이 고위험 사업장(전년도 재해발생 사업장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술지원 수행 🌟

근로자 존중 위에 심은 안전의지, 무재해 실현의 해답

두산건설(주) 군포 당동 2지구 A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안전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뿔별처럼 일회적인 행복이 아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굵은 나무로 성장 하듯 꾸준히 견고해지고 풍성해져야 한다. 그렇기에 두산건설(주) 군포 당동 2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안전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근로자 존중과 견고한 안전제도로 꾸준히 안전에 힘을 더해간다.



근로자 존중이 현장의 안전을 만든다

새 희망이 솟는 새해, 힘찬 희망을 담은 현장을 바라본다. 언 땅을 뚫고 봄을 향해 자라는 나무처럼 하늘에 닿을 듯 불쑥 솟은 '군포 당동 2지구 공동주택 현장' 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하고 두산건설(주)이 세워가는 본 현장의 공정률은 현재 50%에 달하며, 201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힘차게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정 속도에 맞춰 안전도 튼튼히 현장을 휘감으며 굼직하게 자라난다. '이윤추구나 비용 절감의 결과가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다고 해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절대로 우선될 수 없으며, 안전을 해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 는 두산건설 박정원 회장의 안전 최우선 신조를 모토로 두산건설 군포 당동 2지구 현장은 하루하루 안전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 무재해 1 배수를 막 넘어선 현장의 안전은 곧 다가올 2배수를 지나 3배수까지 키를 높여갈 예정이다.

따뜻하고 기쁜 토양에서 싹이 몸을 키우듯 근로자 안전의지가 현장 안전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 준다. 이에 이곳 현장은 근로자 안전의지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존중과 애정을 전한다. 존중과

애정으로 마음을 먼저 열어야 안전의지도 들어설 수 있는 법. 다양한 감성안전 활동으로 근로자 마음 열기에 힘을 쏟고 있다.

매달 13일 시행하는 EHS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마다 시의성 있는 선물을 근로자에게 전한다. 복주머니와 돼지저금통 같은 행복의 상징물을 비롯해 밸런타인데이 시즌에는 초콜릿을, 입학시즌에는 아이들 학용품, 어버이날 즈음에는 카네이션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혹서기에는 아이스크림이나 팔빙수를 수시 제공하며, 혹한기에는 핫팩을 일일이 손에 쥐여준다.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모 턱끈이나 안전모 땀 흡수대 등도 필요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인 이수연 과장은 "안전의지는 근로자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자란다"며 감성안전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내게 관심을 기울이는 현장, 나를 존중하는 현장이라면 자연스레 내 일터에 애정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존중받는 만큼 근로자들도 스스로를 아끼게 되겠죠. 일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견고한 안전신념을 실현하는 촘촘한 안전관리제도

안전의지를 복돋우고 나누는 이가 많을수록 근로자 안전의지는 더욱 두터워진다. 때문에 김일현 현장소장은 안전의지 전도사를 자처하며 항상 솔선수범한다. 1일 최소 3회 이상의 순찰과 점검으로 간혹 느슨해질 수 있는 현장의 안전의지를 바짝 조이고, 확고한 안전신념을 지휘봉 삼아 구석에 숨어 있던 위험요인을 양지로 끌어낸다.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을 철저히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인간존중을 실현합니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안전신념은 현장 안전관리제도 위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곳 현장을 대표하는 안전관리제도로 ‘(1-1-1)+1’과 ‘9TO5’를 손꼽을 수 있다.

(1-1-1)+1은 두산건설이 그룹차원에서 만든 1-1-1제도에 군포당동 2지구 현장이 자체적으로 +1의 의지를 덧붙인 것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위험요인을 발굴한다(1-1-1)’는 기존 방식에 협력사(+1)까지 참여시킴으로써 더욱 견고한 안전관리를 가능케 한다. 이는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제도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인 확장하고 재조합한 무재해 현장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겠다. 발굴된 위험요인은 각 동 담당자를 거쳐 해당 협력사 소장

에게 전달되고,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등록한다. 또, 발굴된 위험요인은 빠지지 않도록 즉각 시정을 시행한다.

‘(1-1-1)+1’이 직원의 자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9TO5’는 보다 총체적이고 본격적인 안전관리를 지향한다. ‘그날 발굴된 위험은 그날 즉각 해소한다’는 의지 아래에 작업서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자와 협력사 관계자가 오전 9시에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중 발굴된 위험요인은 일과 중에 시정한다. 그리고 오후 5시에 해당 사항에 관한 확인·점검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안전의 방점을 찍는다.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등급, 재해예방 및 개선대책, 지시사항 등을 ‘9TO5 안전점검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재차 확인한다.

근로자가 직접 다루는 공도구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현장 투입 전, 자신이 사용해야 할 장비에 대해 필히 점검을 실시하고 또, 15일 단위로 전체 공도구 점검을 진행한다. 현장 출입구 쪽에는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 고리 착용, BT비계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샘플을 마련하고, 샘플과 똑같이 FM 방식으로 착용·설치했을 때에만 작업을 허가한다.

지난 12월부터는 현장의 안전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두산건설에서 기획한 ‘안전 5행5금 shouting’을 시행 중이다. 이는 안전 기본실천 항목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5가지 항목’과 ‘반드시



금해야 하는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구호로 제창하는 것으로 안전조치 시마다 실시한다. 5행에는 안전복장 착용, 정리정돈, 장비반입 안전점검, 작업 전 위험성평가, 불안전행동 지적의 내용을, 5급은 안전장치 임의해체 금지, 상하 동시작업 금지, 작업 중 흡연 금지, 미승인 공도구 사용 금지, 위험작업 시 서두름 금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건강 위험, 발굴부터 대책까지 관심 지속

인간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활동은 근로자 건강 보호로 열정을 이어간다. 협력사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후, 업체별 근로자 건강 현황, 근로자 주요 발병 현황과 예방 대책, 연령대별 주요 질환과 예방 대책 등등 발병 현황과 관리

방법을 자료화해 톨로 만들었다.

또한, 소견서를 바탕으로 혈압 수준을 정상·1도·2도의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치를 표기한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한다. 혈압 수치와 주의사항을 서로 확인할 수 있어 동료 간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주의를 전할 수 있다. 이렇듯 한 번의 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결과 분석과 대책 마련 등 진심 어린 관심을 꾸준히 전달하기에 근로자 역시 진심으로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돌아보게 된다.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발굴하며, 항상 마주하는 현장의 안전의지야말로 무재해 실현의 모범 해답일 것이다. 이처럼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안전의지를 바탕으로 두산건설 군포 당동 2지구 현장의 안전은 더욱 또렷하게 성장해가고 있다. 🌱



무재해 실현을 위한 군포 당동 2지구 현장의 안전진심 셋! 🙌



진심 하나, 뜻깊은 선물로 근로자 독려하기
밸런타인데이 시즌은 초콜릿, 입학시즌은 학용품, 어버이날은 카네이션 등 시의성 있는 선물을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이 외에도 혹서기에는 아이스크림과 팥빙수를 혹한기에는 핫팩을 제공하고, 안전모 턱끈이나 안전모 땀 흡수대 등 안전보호구도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



진심 둘, 그룹 안전제도에 현장 안전의지 결합
그룹안전관리 차원에서 만든 1-1-1(1일 1인 1개 위험요인 발굴) 제도에 군포 당동 2지구 현장이 자체적으로 +1(+협력사)의 의지를 덧붙여 '1-1-1+1'의 안전제도로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그룹의 안전의지를 적극 흡수하는 한편, 이를 보다 구체화해 더욱 견고한 안전을 구축했다.



진심 셋, 근로자 건강 정보의 기록과 공유
검진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자별 혈압 수준을 파악하고 혈압 수치별로 정상, 1도, 2도의 단계가 표기된 스티커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한다. 혈압 수치와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서로 확인함으로써 동료 간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주의를 나눌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재, 그리고 미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좌담회

‘최우선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들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8년이 흘렀다. 그 오랜 시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열정을 쏟아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질적인 고충을 듣고, 지나온 보람을 독려하며, 새로이 나갈 길을 제시하고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입지 재구축 필요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는 생산현장의 속도를 좇아 안전 의식과 기술 역시 빠르게 진화해가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다소 제한되어 온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 활동에의 제한은 크고, 명예감독관의 입지는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안산지역협의회 명예감독관들은 안전 현장으로의 물질적·정서적 투자의 확대와 이를 이끌어갈 명예감독관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먼저 장정식 협의회의장은 명예감독관의 입지 문제를 화두로 던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의 명예감독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관련 대외 행사 공문이 명예감독관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고요. 아직도 다수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증명하는 일화로,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 발휘는 아무래도 어렵지요”

같은 맥락에서 윤유영 협의회지도위원은 무사고 사업장의 근간에 명예감독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명예감독관의 노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사업장 내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순찰하며 무사고 사업장을 지켜갑시다. 이러한 명예감독관의 노력을 사업주나 동료들이 온전히 알고 지지할 때 명예감독관들의 더 큰 자부심을 품고 더 많은 안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안전 개선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가 현장 안전 계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조위원장장을 겸임하는 송병천 명예감독관은 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측 모두

지난 2012년 12월 18일 안사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세미나실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예방 활동 극대화를 위한 관계자 좌담회’를 열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의 임무와 역할을 근거로 안산지역 명예감독관 대표자들이 사업장 내 안전 활동의 제한점과 개선 방안을 논했고, 같은 논제 하에 안전보건공단, 안산시청, 그리고 대행기관의 의견이 두루 수렴되었다.

특히 전국 제일의 모범 협의회로 손꼽히는 안산지역협의회에서 개최한 좌담회이니만큼 더더욱 그 의견에 깊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안산은 2012년 기준으로 8,992개 사업장, 18만 3,700여 명의 근로자가 밀집된 국내 대표 공단인 동시에 전체 사업장의 95%가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으로 열악한 환경과 다분한 재해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명예감독관의 노력은 상당했기에 그만큼 안전에 대한 신념과 제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

〈좌담회 참여인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장정식 협의회 의장(대풍공업)

강상욱 협의회 간사(비츠로테크)

윤유영 협의회 지도위원(금문)

송병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태양금속)

안전보건공단 김병진 서부지도원 원장

건강검진·보건 대행 박종태 안사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장

작업환경측정 안영수 근로복지공단안산중앙병원 산업보건센터 실장

안전대행 김석진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 지회장

안산시청 한봉우 산업지원본부 계장

박태순 시민소통위원회 전문위원(좌담회 진행)





장정식 협의회 의장
(대풍공업)

강상욱 협의회 간사
(비츠로테크)



윤유영 협의회 지도위원
(금문)



송병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태양금속)



박태순 안산시청
시민소통위원회 전문위원



동감하지만, “안전 개선에 관한 사측의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업주가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좌담회의 진행을 맡은 박태순 전문위원은 “다수의 명예감독관이 동감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지원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며, “명예감독관들은 더욱 적극적인 활동과 기관 교육의 참여로 자신의 입장과 열정을 어필해야 한다”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명예감독관의 영역, 능동적 활동으로 확장

명예감독관의 역할에 동참하는 안전,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의 대행기관을 비롯한 공단 대표자들은 명예감독관의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제3자의 시각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능동적인 활동과 제안으로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의지를 사측에 온전히 표하고, 외부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장에 새로운 정보를 접목해갈 것을 이야기했다. 먼저 안전보건공단 서부지도원의 김병진 원장은 명예감독관의 권리 확보를 위해 의무를 앞서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명예감독관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독려했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때 자기 영역의 확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행하는 안전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그 정보들을 사측에 꾸준히 전달한다면, 사측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장해줄 것입니다. 또한,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 우선 무재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겠죠. 1배수, 2배수 기록하는 만큼 사측의 안전 개선 의지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현장 안전에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끌어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험요소 리스트를 작성한 후, 3년 정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회사 측에도 투자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종태 소장은 능동적인 의무 이행에 동감하는 한편, 의무만큼의 권한과 자격을 명예감독관에게 부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명예감독관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 영역을 가시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거나 안전 관련 보고 건에 명예감독관의 결재란을 구성하는 등 명예감독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까지 명예감독관의 안전 활동을 확장하거나 공단 내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으로써 명예감독관 역할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 김석진 지회장은 명예감독관의 입지 확보 차원에서 명예감독관 행사가 있을 때, 사업주나 근로자가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을 권장했다. 과거 1대 안산지역협의회장을 지낸 박태순 전문위원은 포스터의 홍보 효과가 실제 상당함을 과거의 사례를 빗대어 보충했다.

근로복지공단안산중앙병원 산업보건센터의 안영수 실장은 “실질적인 측정이나 검진 결과에 따른 자료를 확보하고 앞서 이해함으로써 이를 산재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며, 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이 현장의 실상을 전반적

김병진
안전보건공단 서부지도원 원장



한봉우
안산시청 산업지원본부 계장



안영수
근로복지공단안산중앙병원
산업보건센터 실장



박종태
안산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장

김석진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 지회장

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명예감독관으로서 스스로 현장에서 자격과 수준을 갖춰가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단이나 대행기관에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물론, 여러 개선 방안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명예감독관의 공동체적 의지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장정식 협의회 의장은 열정 있는 명예감독관들의 교류를 위한 소규모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크고 작은 공동체적 활동이 지역의 안전 활동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안산시청 산업지원본부의 한봉우 계장 역시 좌담회에 희망적인 계획을 전달했다. 지난 2011년도 3월 안산시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안산 안심일터 만들기’ 협약 이후, 지역 산재예방 예산의 증대를 꾀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히 예산을 높여 명예감독관의 열정에 힘을 더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개선책이 꾸준히 더해져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개선을 위한 공동의 의지와 믿음을 바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조금씩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을 거듭해갈 것이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바로 알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아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 또는 규칙, 기준 등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과 안전보건 관련 조직에서 시행토록 명시된 업무내용을 실질적으로 확보토록 협조·감시하는 데 있다.

현장근로자를 위촉함으로써 현장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발굴·개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당사자로서 능동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다.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크게 10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 ②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자체검사에의 입회
- ③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 ⑤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⑥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요청
-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⑧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⑨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⑩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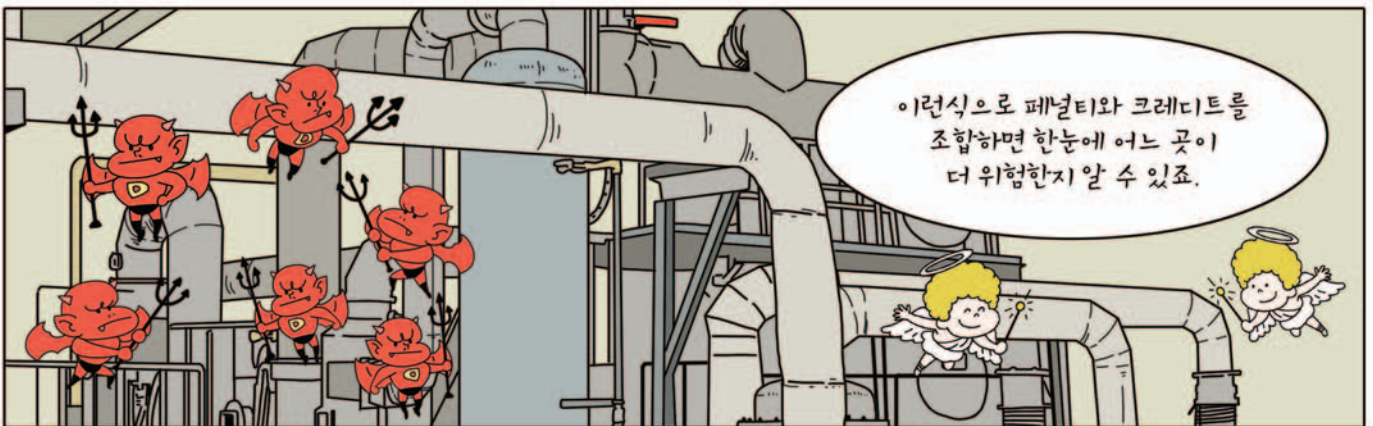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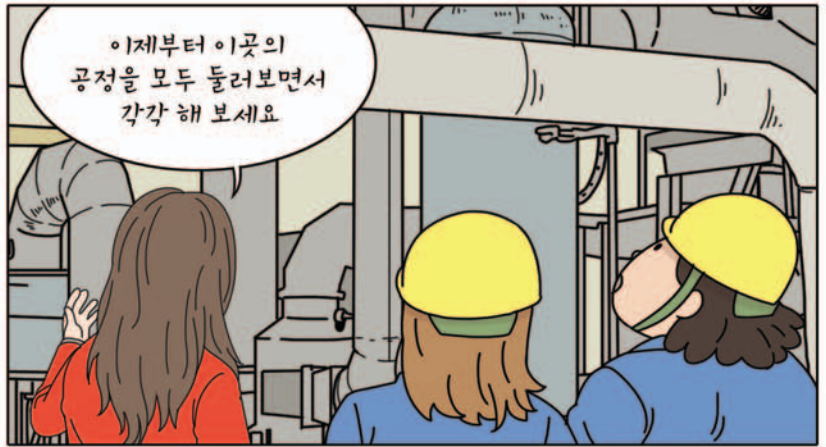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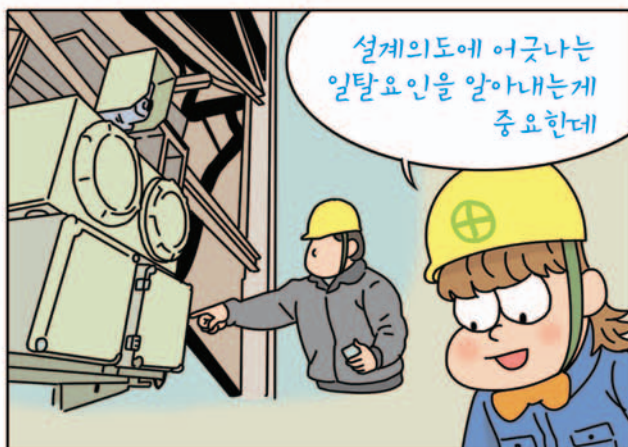
바람의 작업자

연재만화 25

공정안전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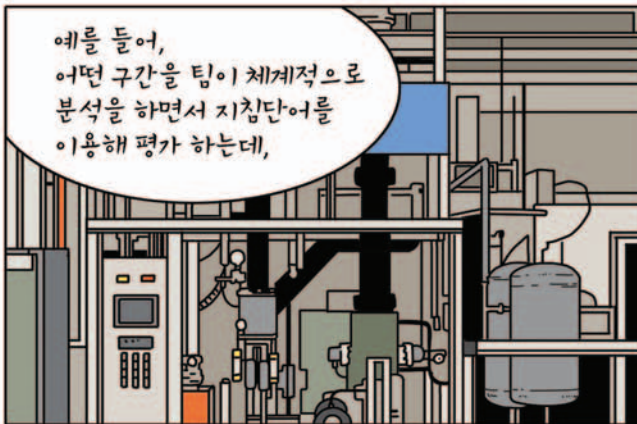






지침단어는 'NO' 는 부적합, 'YES' 는 감소 같은 의미가 있는데,

- (1) No : 설계의도에 부적합함
- (2) Less : 정량적(quantitative)감소
- (3) More : 정량적 증가
- (4) Part of : 정성적(qualitative)감소
- (5) As well as : 정성적 증가,
- (6) Reverse : 설계의도(intent)와 반대현상, 등



스캔! 안전보건 QR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안전보건 정보를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안전보건정보 조회 방법

하나 안전보건공단 App을 실행시키고
QR코드 촬영을 누릅니다



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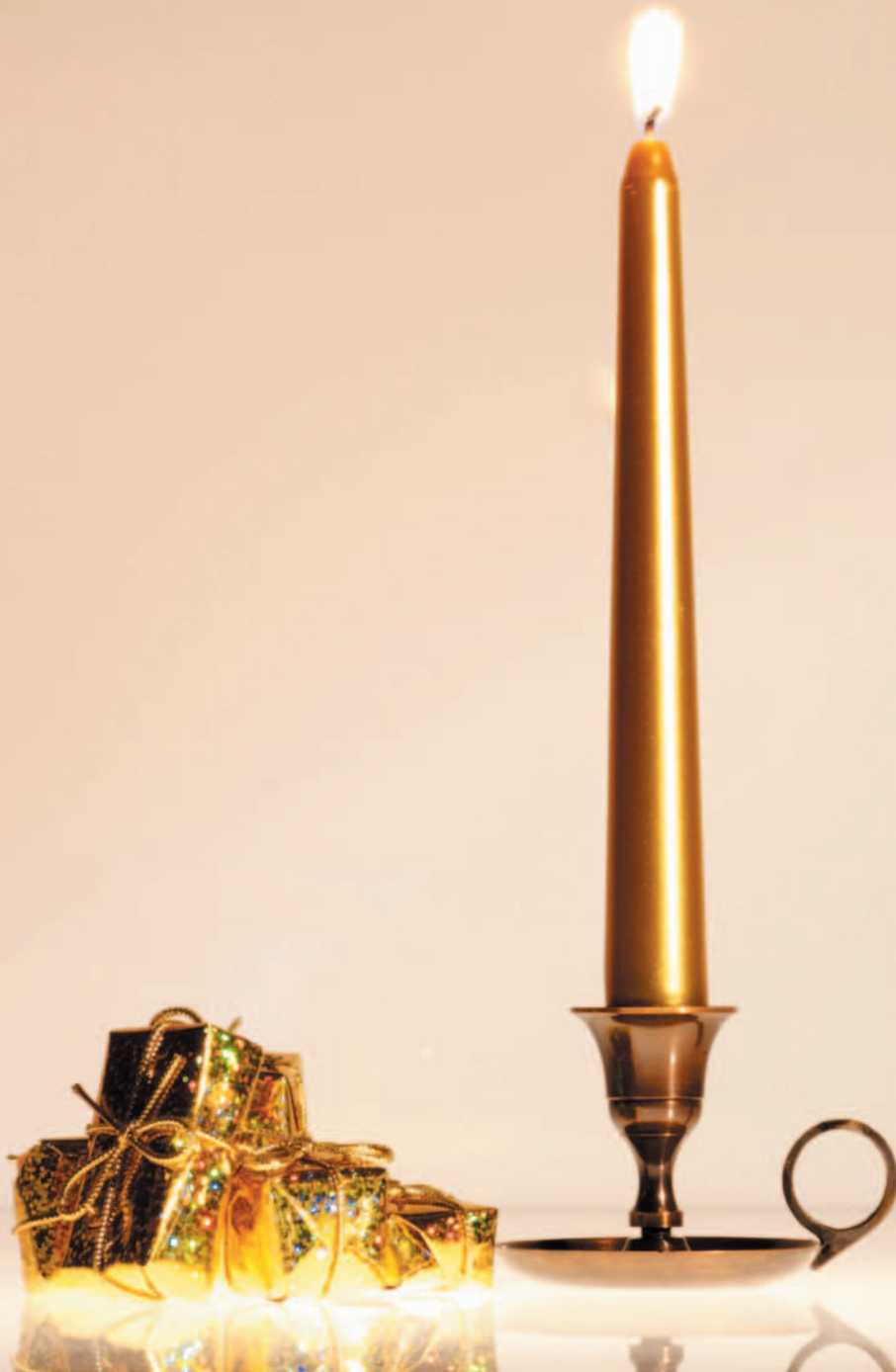
셋 기계기구 안전수칙 및
MSDS 요약정보를 확인합니다



* 안전보건 QR코드 스티커 부착은 공단 기술지원 사업 시 실시됩니다.
문의 : 관할구역, 안전 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행복 발전소 • Happiness

50 근로자 건강증진 인증 사업장 54 생활안전 플러스 56 건강 365 58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60 Theme Keyword 62 Theme Touch 64 Theme Plus



협력하는 건강현장, 앞서가는 건강의지

파주전기초자(주)

건강은 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견고히 만들어 가는 것이다. 건강 관리실과 안전팀의 공조로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고, 보건 관리자의 열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업그레이드한다. 이처럼 파주전기초자(주)는 협력과 집중으로 일류 건강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안전팀과의 협력으로 건강현장 확보

파주전기초자(PEG)는 디지털 산업시장의 핵심인 TFT-LCD 분야의 영역 확장을 위해 세계 LCD 산업의 대표적 기업인 LG Display와 세계 특수유리산업의 주역인 NEG(Nippon Electric Glass)가 손잡고 2005년에 설립한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기업이다. 세계적인 두 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한 뛰어난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LCD Glass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빠르게 앞서 나가는 중이다. 더군다나 아직 10년도 되지 않은 젊은 기업으로 도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업 문화를 선도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싱싱한 젊음처럼 근로자 건강 역시 남달리 튼튼할 터.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파주전기초자의 건강증진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건강 관리실과 안전팀의 끈끈한 공조다. '건강과 안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현장 내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필수. 이를 위해 신체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기획하는 등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가 현장 설비 개선 기획에 직접 참여를 하고, 안전팀은 이를 철저히 반영함으

로써 안전과 건강이 완벽하게 조화된 현장을 만들어간다.

대형 유리를 손으로 잡아 세우는 과정에서 어깨높이와 유리 상단의 높이차 때문에 발발하는 어깨 통증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리프트를 설치했다. 8시간 동안 1,400개의 유리판을 다뤄야 하는 근로자들은 이제 리프트 위에서 편한 자세로 큰 무리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또, 하루 약 1,300회 이상 버튼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근로자의 손목을 주시, 스위치를 외부로 돌출시켜 손목 꺾임과 손가락의 피로감을 제거했다.

근로자 키보다 높게 설치되었던 자동투입기 스위치의 하향 조절이나,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리판 회전 작업에 자동 시스템을 보완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공정 환경에 맞도록 현장 설비를 재구성함으로써 작업 편의와 안전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근골격계 예방 부분은 아니지만,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 에어클리너도 같은 목적으로 개발한 부분이다. 고속 에어를 발사해 하단의 집진기로 분진을 몰아넣음으로써 미세한 분진으로부터 근로자를 완벽하게 보호한다.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측정에도 참여한다. 소음과 분진 측정에 직접 동행하고, 측정 후 보고까지 현장과 건강관리실을 오가며 건강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건강이 곧 단단한 안전을 만들고, 안전이 곧 건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건강 증진실과 안전팀은 끈끈히 협력하고 있다.

튼튼하고 날씬한 비흡연 근로자 만들기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은 사무실에서도 활발히 이뤄진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줄넘기 체조'를 손꼽을 수 있다.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 구호에 맞춰 5분간 체조를 진행하는데, 해당 시간 외에도 체조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줄넘기 체조 포스터를 따로 제작·배포했다. 이에 건강관리실의 이해진 보건관리자가 줄넘기 체조의 효과를 강조한다.

“맨손 체조가 다소 지루한 감이 있어서 줄넘기를 활용한 체조를



보급했습니다. 이른 아침, 위축된 근육과 관절을 한껏 풀고 다듬은 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목, 어깨, 허리, 골반까지 구석구석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근골격계 통증 호소자 상당수가 호전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함께 비만 관리와 뇌심혈관 질환 예방 역시 파주전기초자를 대표하는 건강증진활동이다. 2010년부터 체지방 측정을 시행했으며 비만자를 선별해 3, 6, 9월에 체지방, 혈압, 혈당을 총체적으로 검사한 후 체지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근로자를 뽑아 포상한다. 그 성공률은 2011년 18.5%에 이어, 2012년 20%를 넘어섰으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만과 뇌심혈관 질환이 뗈 수 없는 관계에 놓인 만큼 비만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아예 체지방 측정기를 구매한 후 수시로 체크를 해왔죠.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파주전기초자의 전 근로자가 틈틈이 건강관리실을 방문해 체지방률을 측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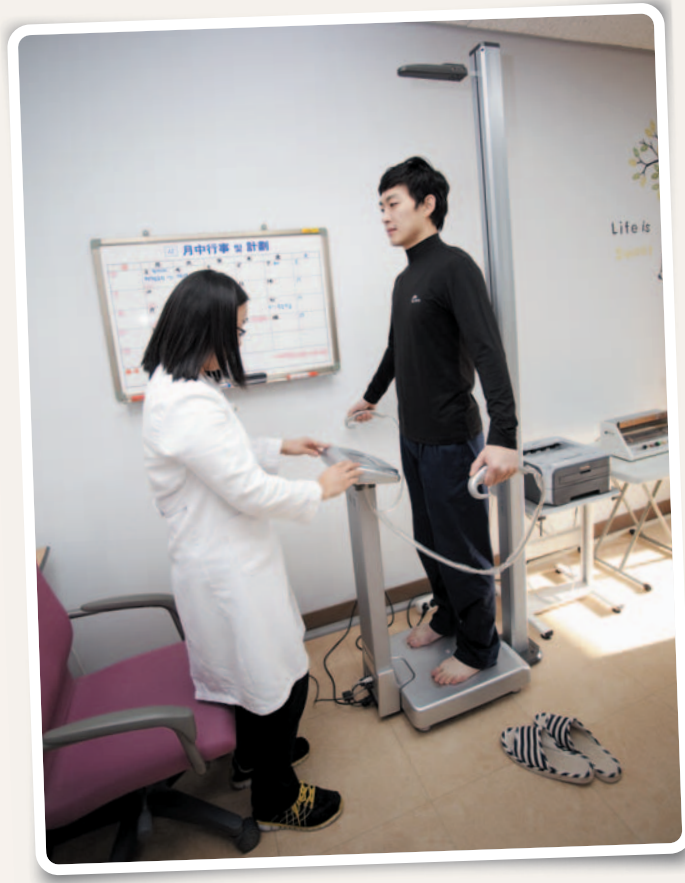
건강증진활동에서 금연 활동을 빼놓을 수는 없을 테다. 2012년에는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까지 상하반기 각각 100일의

기간을 지정해 ‘100일 금연운동’을 펼쳤다. 보건소와 연계 없이 보건관리자가 직접 측정과 상담을 병행했으며, 회사 내 보건관리자가 직접 밀착 관리를 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금연 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다. 지난 한 해에만 15명이 금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상품권 등의 축하상품으로 근로자의 금연의지를 북돋았다.

건강증진의지를 이끄는 보건관리자의 열정

이외에도 파주전기초자의 건강증진활동은 구석구석 빛을 발한다. 현장 라인마다 설치한 벽걸이형 구급함은 여타 업체에서 볼 수 없는 외관과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깔끔한 디자인의 구급함에는 응급 상황을 위한 모든 구급약품을 가득 비치했다. 지난 12월에는 외부 병원과 연계해 협력업체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등의 무료 안과 검진을 시행했다. 내부 히터로 건조해진 환경 속에 안구 건강을 지키고자 시행한 검진으로,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인공눈물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EHS 교육은 매해 7~8월 중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 금연 교육 등 건강증진 관련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집체교육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의 지는 동시 향상한다. 물론, 일정 시간의 교육만으로 근로자의 건강증진의지가 100% 향상될 수는 없을 테다. 이에 앞서 보건관리자의 건강 열정이 가장 먼저 앞서 있어야 함을 이해한 보건관리자가 강조한다.

“정밀체력측정 시에는 마주치기 어려운 야간 근로자들까지 일일이 시간을 맞춰가며 검사해드렸죠. 건강증진활동 관련 대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요청했구요. 과거에는 ‘건강증진활동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진정한 열의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근로자들도 관심을 갖고 따라오는 듯합니다.”

건강관리실을 찾지 않던 근로자도 이제 자발적으로 수시 방문할 정도로 건강증진 의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파주전기초자.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장 구석구석 건강과 안전의 빛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파주전기초자의 건강증진 성공 3대 요인

❶ 건강증진실과 안전팀의 끈끈한 협력!

건강은 건강, 안전은 안전이라는 생각은 금물. 건강이 곧 안전을 만들고 안전이 곧 건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건강관리실과 안전팀이 협력한다. 보건관리자는 건강관리실 밖으로 나가 현장 시설 개선은 물론, 작업환경측정까지 참여한다. 현장 안전과 건강의 결탁으로 근로자는 진정 일할 맛 나는 일터를 선물 받는 것이다.



❷ 줄넘기 체조로 스트레칭 업그레이드!

줄넘기 체조로 맨손체조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을 구사한다. 양팔 아래위로 잡아당기기, 어깨 뒤로 젖히기, 전신 늘리기, 줄넘기 뒤로 하고 허리 숙이기 등등 동작별 8박자의 구령에 맞춰 아침마다 5분씩 시행 중이다. 또한, 근무 중에도 언제든지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현장에 체조 설명 포스터를 배포했다.



❸ 자체적인 100일 금연운동 기획

상하반기 각각 100일의 기간을 지정한 후 ‘100일 금연운동’을 펼쳤다. 보건소와의 연계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했으며, 보건관리자가 직접 일산화탄소 측정 및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집중적인 관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100일 금연에 성공한 근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상품을 활용해 참여 욕구를 높였다.



겨울철 전기 제품 화재 · 화상 사고 요주의!



전기 장판 · 매트 사고 사례

- ① 2011년 10월 구모 씨(31세)는 잠시 외출한 사이 켜 놓은 전기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침구류와 바닥 · 벽지 등 인테리어 일부가 탔다.
- ② 2011년 9월 김모 씨(35세)는 잠을 자던 중 10시경 타는 냄새가 나서 일어났다. 전기 장판 온도조절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온도조절기 전원을 끄려고 잡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감전이 돼 손에 화상을 입었다.
- ③ 2010년 12월 김모 씨(40세)는 안방 침대에 전기 매트를 켜 놓고 거실에서 쉬고 있던 중 매트 위에 놓여 있던 라텍스 베개가 발화돼 매트 등이 일부 연소됐다.

전기 장판 · 매트 사고는 얼마나 발생하나?

전기 장판 안전사고는 제품 및 제품과 같이 사용하는 이불 · 매트리스 등 침구류가 소손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7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중 화상을 입은 위해 사례도 16% 발생해 전기 장판(매트)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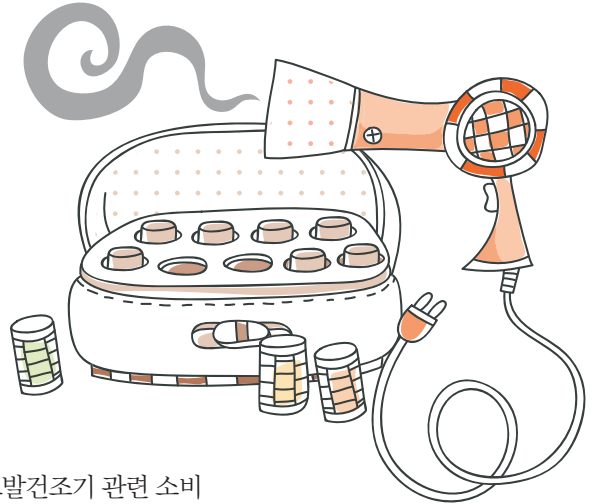
2009년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전기매트 포함) 관련 안전 사고는 2009년 130건, 2010년 238건, 2011년 10월 말 현재 2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위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인해 제품 및 제품과 같이 사용한 침구류(이불 · 매트리스 등)가 타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전체의 438건(70.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용 중 화상 103건(16.7%), 터짐(폭발) 15건(2.4%), 감전 11건(1.8%) 등의 순이었다.

전기 장판 · 매트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온도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기 장판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장판의 내부 온도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아 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전기 장판은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의 전선이 끊어지거나 얹혀 합선이나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 제품 표면에 물을 쏟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물기를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한다.
- 전기 장판 속으로 물이 들어가 전원부에 닿으면 감전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제품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말고 반드시 애프터서비스를 받은 뒤 사용하도록 한다.

전기고데기 · 모발건조기 사고 사례

- ① 제주에 거주하는 고모 씨(24세)는 2011년 6월 전기고데기를 사용하던 중 전선 부분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팔에 튀어 화상을 입었다.
- ② 전북에 거주하는 김모 씨(18세)는 2010년 3월 전기고데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고 침대 위에 둔 상태로 외출했다. 추후 화재가 발생했는데 고데기 과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 ③ 인천에 거주하는 안모 씨(31세)는 2011년 6월 모발건조기로 머리카락을 말리던 중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④ 인천에 거주하는 황모 씨(30세)는 2010년 12월 욕실에 전원을 켜둔 상태로 계속 두었던 모발건조기를 밤에 잠시 사용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취침 중 화재가 발생해 살펴보니 모발건조기 전원부와 주변이 불에 탔다.



전기고데기 · 모발건조기 사고는 얼마나 발생하나?

가정에서 전기고데기와 모발건조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용 전기고데기와 모발건조기 관련 소비자 위해 정보는 2009년 43건, 2010년 72건, 2011년 10월 말 현재 79건으로 나타났다.

전기고데기 사고는 2009년 22건, 2010년 39건, 2011년 10월 말 44건이 발생했으며 모발건조기는 2009년 21건, 2010년 33건, 2011년 10월 말 35건이 발생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94건의 사고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기고데기와 모발건조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가 53.6%로 가장 많았고, 제품이 '폭발'한 경우와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각각 20.6%와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별로는 '20~30대'가 43.4%(72건)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용 전기고데기와 모발건조기를 사용하다 다친 신체 부위는 '손'이 47.1%(65건)로 가장 많았다. 🌸

전기고데기 · 모발건조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전기고데기(전기머리인두)와 모발건조기 구입 시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제품안전인증은 제품안전포털 사이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사용 중에는 전기고데기의 금속 부분(발열판)은 매우 뜨거우므로 데지 않도록 주의한다.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아 파손됐을 때는 본체를 만지지 말고 먼저 전원 코드를 뽑는다.
- 제품의 흡입구에 먼지나 머리카락이 붙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고,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 · 보관한다. 콘센트가 헐거우면 열이 발생해 플러그나 코드가 녹을 수 있으므로 플러그를 제대로 꽂아 사용한다.
- 물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에 빠뜨렸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일 먼저 전원 플러그를 뽑는다.
- 제품은 세탁물 말리기 · 배관 해동 · 애견 털 관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독감 · 눈병 요주의!

손 씻기 · 예방 접종으로 건강한 생활 즐길 수 있어

겨울철에는 유행성 독감과 유행성 눈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들 질병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고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독감(인플루엔자)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겨울철에 많이 유행한다. 손 씻기와 예방 접종으로 유행성 독감과 눈병을 예방해 건강한 생활을 즐기자.



유행성 독감의 증상과 치료법

독감 증상은 감염 후 24~48시간 안에 나타난다. 단순한 감기 증상이 독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감은 증상이 감기보다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몸에 열이 나면서 추위를 느끼게 된다. 고열과 발한(피부의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는 현상), 오한이 나며, 근육통으로 시달린다.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재채기 · 코막힘 · 콧물 · 인후통 ·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종종 피로감과 우울증이 남는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독감 합병증은 기도의 세균 감염(급성 기관지염)과 폐 감염(폐렴)이다. 영아, 고령자, 만성심장 질환자 혹은 폐 질환자,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같은 면역력 저하자, 당뇨병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전에 건강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차가운 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열을 내리게 하는 처치를 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진통제와 감기약은 근육통과 여러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호흡 곤란이 있거나 병이 이를 이상 계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대개 6~7일 후에는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기침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고 피로감과 우울증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예방 접종은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제외한 고위험군, 의료 기관에서 일하거나 노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처럼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매년 예방 접종을 하면 접종자 중 약 2/3는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 해마다 다른 종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Tip

유행성 독감을 예방 수칙

① 손을 자주 씻는다.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는다. 손은 비누 등으로 20초 이상 씻는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코를 가린다. 기침이 계속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한다. 휴지가 없을 때는 옷소매로 가린다. 기침할 때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킨다.

②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 접종을 받는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권장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50세~64세 인구,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인 거주하는 사람,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사람, 의료인, 사회 복지시설 생활자 등이다.

③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한다.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다.

유행성 눈병의 증상과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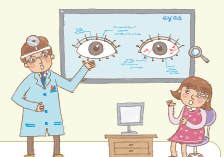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병하며 일단 발병하면 증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보통 양쪽 눈에 발병하며 발병 후 2주간은 심하게 불편하다.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유행성 눈병이 전염되므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성 눈병의 주요 증상은 충혈·동통·눈물·눈부심·결막하 출혈이 나타나며 3~4주 지속된다. 발병 2주 정도까지는 전염력이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으며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 안약이 처방된다.

눈병을 예방하려면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수건이나 컵 등 개인 소지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병이 유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한다. 특히 수영장 출입은 삼간다. 눈에 부종·충혈·이물감이 느껴지면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눈병 환자는 증상 완화와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품은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살균제(치아염소산나트륨)를 희석한 소독액에 10분간 담갔다가 사용한다.

눈은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며,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환자는 전염 기간(약 2주간)에는 놀이방·유치원·학교는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



Tip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 ①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는다.
- ②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④ 눈에 부종·충혈·이물감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⑤ 안질환 환자는 증상 완화와 감염 예방을 위해 즉시 치료 받는다.

두통예방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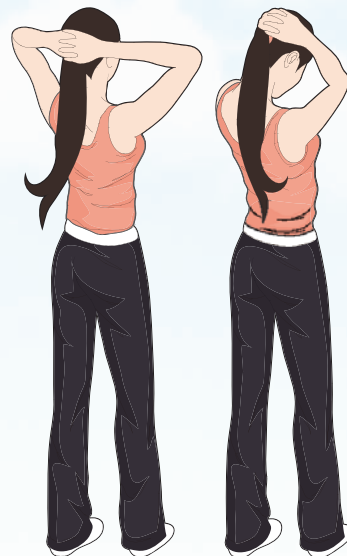
겨울이 되면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 습도를 맞추기 위해 난방과 가습을 동시에 하고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다. 짧은 시간은 상관 없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탁해지기 마련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에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두통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가끔 나타나는 두통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기 질 저하 혹은 장시간의 모니터 주시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는 두통은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트레칭이라도 평상시에 생활습관이 안 좋다면 병을 키우기 마련이다. 올바른 자세를 점검 후 스트레칭을 실시해 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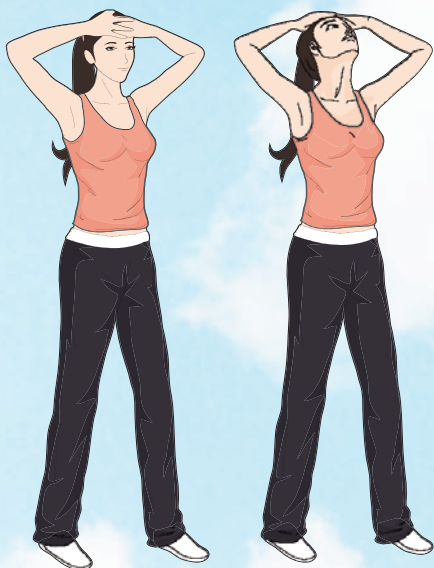
올바른 앉기 자세

- ① 턱은 아래로 가볍게 당긴다.
- ② 팔은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친다.
- ③ 무릎은 90도로 바르게 세운다.
- ④ 허리는 등받이에 바짝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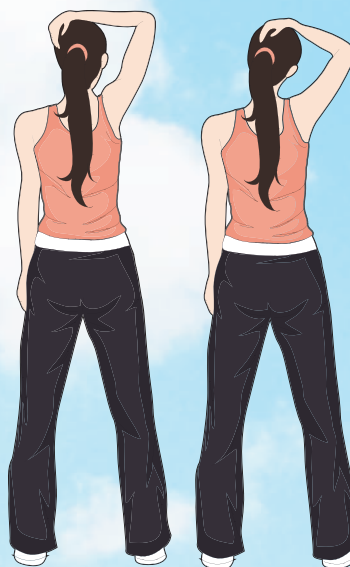
1 뒷목 스트레칭

- ①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한다.
- ② 양손을 깍지 끼고 정수리 아래 뒤통수에 댄다.
- ③ 목 뒷덜미의 근육에 신전감이 느껴지도록 양손을 아래쪽으로 눌러 턱이 가슴에 닿게 한다.



2 앞 목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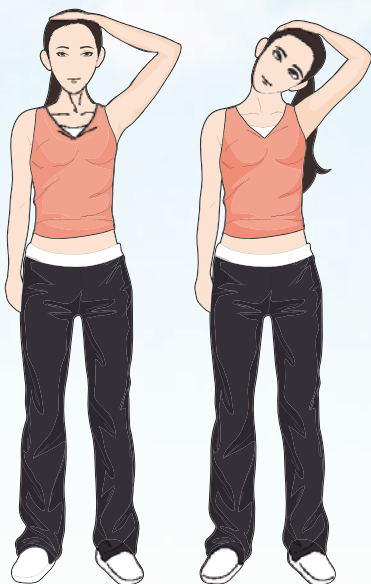
- ①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한다.
- ② 양손을 깍지 끼우고 이마에 갖다 댄다.
- ③ 목 앞부분의 근육에 신전감이 느껴지도록 양손을 위쪽으로 당겨 코가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3 대각선 목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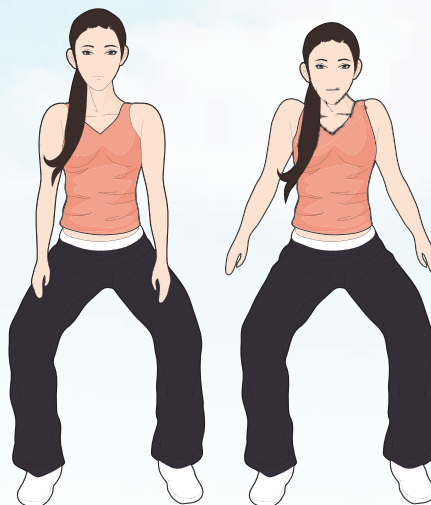
- ①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한다.
- ② 오른손을 머리 위로 가로질러 왼쪽 뒤통수의 귀 뒤쪽에 걸도록 한다.
- ③ 오른손에 힘을 주어 머리를 약 45도 각도로 당기도록 한다.

* 두통은 긴장할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법이다. 목 스트레칭을 완료했다면 마지막은 어깨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자.



4 옆 목 스트레칭

- ①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한다.
- ② 왼손을 머리 위로 가로질러 귀 뒷부분까지 감싼다.
- ③ 왼손에 힘을 주어 머리를 왼쪽으로 당긴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5 어깨 스트레칭

- ① 상체를 바로 세우고 어깨만 으쓱했다가 내린다. 턱은 앞으로 내밀지 않고 어깨만 움직인다.
- ② 들숨과 날숨을 고루 쉬며 위 동작을 5회 반복한다.
- ③ 좌우의 어깨높이를 같은 높이로 유지하고 앞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행복 발전소 | Theme Keyword

글 유진 참고도서 메리 제인 라이언 저 <작심삼일을 끝내는 실천의 힘 아이월>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런 새해계획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어느새 목표는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들에게 새해 세운 계획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조사한 결과 69.3%가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중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7.8%나 됐다.

이처럼 익숙해진 현실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행동해야만 성공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도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야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은 한 강의에서 “감독님이 맡으신 팀은 얼마나 강하기에 매번 이기느냐?”는 질문에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에 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어차피’로 시작되는 결과론적 체념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믿는 ‘반드시’ 로써의 능동적 도

전정신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장자에 ‘소요유’에는 현실 세계에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메추라기와 계속된 실패와 좌절에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붕이 등장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장자는 소요유에서 메추라기와 대붕의 우화를 빗대 설명했다.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현재의 모습보다 발전하려는 생각,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려는 의도도 엄청난 도전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거창한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해목표 같은 결심들을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사람들이다. 매년 똑같은 새해결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해 목표 하나씩만 성공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도전 정신만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도전하고 행동하는 자만이 원하고 바라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꿈을 향한 위대한

Theme Keyword
도전

도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누군가는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만들어진 그 길을 걷는다. 이 둘 사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 있을 뿐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낸 4명의 도전가. 이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값진 도전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수백 번의 도전 끝에
하늘을 날다

‘라이트 형제’

미국의 비행기 제작자이자 항공계의 개척자인 라이트 형제. 이들에게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1981년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 처음으로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발명한 후 라이트 형제 역시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자전거 상회를 운영했던 이들은 틈만 나면 하늘을 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렇게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감행한 끝에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직접 만든 가솔린 기관을 달아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 조종에 성공했다. 이날 비행에서 동생인 오빌 라이트는 12초쯤을 날았고, 형 윌버 라이트는 59초 동안 260미터를 비행했다고 한다. 12년간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첫 비행에 성공한 이들은 유럽 각지를 돌며 자신들의 비행을 공개했다. 그 후 1908년 미국에서 이들의 비행기 한 대를 구입했고 같은 해 프랑스에서도 이들이 설계한 비행기를 조립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 아메리칸 라이트 비행기 제작회사를 설립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12년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라이트 형제. 긴 시간 수백 번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도전하겠다는 이들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끈기와 용기, 그리고 이들의 도전정신이 결국엔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수많은 장애를
도전으로 극복한

‘헬렌 켈러’

“오늘의 실패를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올지도 모르는 성공을 생각하세요. 참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당한 연설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장애의 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살 때 앓은 열병으로 맹농아가 되었지만, 일곱 살 되던 해에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남으로 헬렌 켈러의 인생에는 값진 도전들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1900년, 그녀는 맹농아자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래드클리프 칼리지를 우수하게 졸업했으며,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시각장애인 위원회에서 일하며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주옥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책으로 엮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의미를 일깨워주기도 했으며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법한 인생을 ‘가능’과 ‘도전’으로 채우며 삶의 단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던 헬렌 켈러. 그녀의 부지런한 걸음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이 시대에 남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멈추지 않는다면
꿈은 이뤄진다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만화를 사랑했다. 틈만 나면 연필로 만화를 그렸던 그는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에도 만화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하면서 일명 ‘창의력 없는 직원’으로 무시당하기도 했으나 그는 좌절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래서 퇴근 후 쉬지 않고 카메라 공부와 애니메이션 실험을 반복했다고 한다.

몇 년 후, 꾸준한 노력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들었지만, 영화는 제작사를 만나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 한순간 돈과 작품을 모두 잃게 돼 창고에서 지냈던 그는 열악한 그곳에서도 오로지 애니메이션만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살던 창고에서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키마우스’를 만들게 된다. 영화 제작을 위해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판 그는 결국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며 세간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어 월트 디즈니는 만화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디즈니랜드를 개장했다.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야말로 뜨거움 그 자체였다.

도전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 월트 디즈니. 그의 삶은 우리에게 던지시 묻고 있다. ‘꿈을 꾸는가? 그렇다면 멈추지 마라. 원한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도전가

‘제임스 카메론’

호기심 많은 캐나다 시골 소년이 우연히 SF와 영화에 눈을 뜨고, 영화관의 맨 밑바닥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디지털 영상 혁명의 선구자가 되었다. 제임스 카메론, 그가 전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도전’이다. 25년간 만든 7편의 영화가 모든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그가 갖고 있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갔다는 데 있다.

영화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카메론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줄 아는 인물이다. 때로는 직접 카메라를 잡고,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기계와 세트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타이타닉>을 위해 심해 잠수정을 타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는 감독. 지금까지의 작품 중 최고라 꼽힐 수 있는 영화 <아바타>는 그가 처음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1990년대 초반부터 1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기술로 완성한 것이다. 컴퓨터 제작용 실시간 가상 카메라와 시뮬캠 시스템 등 3D 첨단 혁신기술들을 적용해 새로운 영화의 장을 이뤄낸 그는 최근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호기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상상력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도전하라.” ✨



작심삼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심은 풀어지고 충만했던 의지는 어느새 사라지며 작심삼일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 작심삼일의 고리를 끊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8가지 비결을 살펴보자.

1. 타협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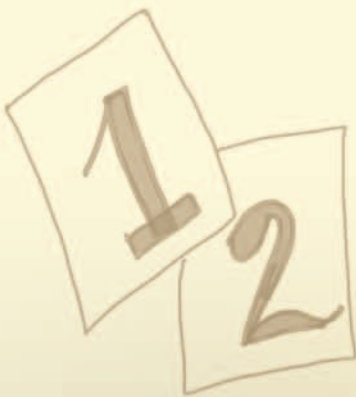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일을 하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맹세, 약속, 서약이라 불려도 좋다. 다만 그 약속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 처음의 열정이 사그라진 후에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존중하듯 자신과의 약속도 똑같이 존중하라. 자신의 결심을 협상의 여지가 없는 평생의 약속으로 만들어라.

2. 실천 계획을 세워라

당신의 목표는 구체적인가? 목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최근에 들은 몇 가지 결심들을 소개한다. “활기차게 산다.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운다. 결정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결심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결심들을 행동으로 바꾸어야 한다. 행동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나갈지’ 알려준다. “활기자체 살기 위해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 30분씩 운동할 것이다. 긴장을 풀기 위해 소파에 발을 올리고 매일 30분씩 쉴 것이다. 금요일까지 언제 어디로 휴가를 갈지 결정할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3. 변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라

당신이 흔히 하는 변명과 합리화는 무엇인가? 예전에 결심을 지키려할 때 그 일을 방해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잊어버렸는가? 시간이 없었는가? 흥미를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는가? 예전에 결심을 포기할 때 어떻게 합리화했는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너무 어려워.”라고 속삭였는가?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고 흔히 둘러대는 변명과 합리화를 종이에 적은 다음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워보라. 그러면 변명이나 합리화가 앞을 막아서도 멈춰 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변명과 합리화는 분명 나타날 것이다! 뇌는 한번 했던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기한을 정하라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마이크 제이는 전체 인구 중 60퍼센트가 “외부의 압력에 자극을 받아 실천에 옮긴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기한 같은 외부 요소가 정해지지 않는 한 출발점에서 계속 꾸물거리는 경향이 있다. 나머지 40퍼센트의 사람들은 압력이 가해지기 전에 행동에 나선다. 자신이 압력에 의해 자극을 받는 스타일이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한을 두어라. 동창회, 휴가, 결혼식, 공연 등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살을 빼고 싶었던 한 남자는 연극 〈폴 몬티〉의 주연으로 발탁됨으로써 결심을 실천으로 옮겼다. 〈폴몬티〉가 공연되는 석 달 동안 끈편티를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 여자는 직장에 서 박사학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침내 끝낼 수 있었다. 마감기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실적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압력에 의해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시한은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 일정을 짜라

2004년 1월 이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 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매일 30분씩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80퍼센트 정도는 지켰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 고객과의 약속이나 강연 등과 겹치지 않도록 운동할 시간을 정해 일일이 다이어리에 적어 놓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일들로 시간을 뺏겨 채워놓았을 것이다. 매일 글을 쓰고 싶은가? 달력에 글을 쓴 날을 표시해보라. 연인을 찾고 싶은가? 이성을 만난 날짜를 잡아라. 스스로와 시간을 정해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6. 매일 하라

누군가 달라이 라마에게 건강한 삶의 비결을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였을까? “습관.” 나쁜 습관은 우리를 죽이고 좋은 습관은 진정한 욕구에 가까워지게 한다. 원하는 것을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만든다면 굳이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 가정과 직장 사이에 균형을 잡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라. 이를테면 30분 일찍 퇴근한다거나 저녁을 먹고 가족과 산책한다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설을 읽어라.

7. 행동을 점검하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 행동을 점검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이어트 다이어리를 쓰고, 하루에 화를 몇 번이나 참았는지 세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얼마나 지켰는지 기록하라. 또한 결심(TV를 볼 때 뭔가를 먹지 않는 것)을 했으면 그 결심을 지키고 있는지 항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8. 앞을 보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라. 그러면 용기가 생기면서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뺀 5킬로그램, 정리한 옷장, 당신만을 위한 저녁시간 등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자문해보라. 그래야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산업재해는
예외카드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제조업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 ① 기계·기구 및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③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보건 에너지 Energy

68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70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72 임업 중대재해사례 74 안전보건 포커스

76 지구촌 안전보건 78 KOSHA 뉴스

80 안전인증 취소현황

82 KOSHA Info & 독자퀴즈



착각이 일으킨 부동액 음용 사고

부동액 섞인 물로 끓인 라면 먹고 사망

부동액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무색, 무취한 특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음용수로 잘못 알고 마시다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부동액이 혼합되어 있는 용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부동액 섞인 물인지 모르고 라면에 부어

지난해 1월, 전북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외부 치장벽돌 쌓기와 줄눈 넣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오전 8시 20분경, 보조작업자인 박착각(가명) 씨는 라면을 준비하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호스연결관이 빠져 있어 물이 바로 공급되지 않았다.

“빨리 안 가져가면 혼날 텐데, 그냥 여기 있는 물 끓여야겠다.”

박착각 씨는 물 공급이 늦어지자 급한 마음에 드럼통에 남아 있는 물을 커피포트에 넣어 끓였다. 첫 번째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던 중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자, 두 번째 커피포트에는 수돗물을 받아 끓였다.

“라면 왔습니다. 다들 드시고 하세요.”

2개의 커피포트에 물이 끓여지자 박착각 씨는 흠어져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들을 불렀다.



“웁~, 이거 라면 맛이 왜 이래?”

“그러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커피포트의 물로 컵라면을 먹은 근로자들은 강한 냄새로 인해 라면을 먹다가 중단했다.

라면을 먹은 뒤 각자 작업위치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난 8시 50분경, 작업 중이던 이상해(가명) 씨가 누워서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증세를 일으켰다. 현장 소장이 즉시 119에 연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하고 말았다.

라면을 먹은 나머지 9명의 근로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7명은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특별한 증세가 없어 퇴원했다.

부동액에 대한 교육 받지 않아 수돗물로 오인

조사 결과 간식을 준비하던 박차각 씨는 물이 빨리 공급되지 않자 단순히 간식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드럼통의 물의 상태가 맑고 깨끗해 보이자 부동액이 혼합된 물을 일반 수돗물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커피포트로 끓인 물로 컵라면을 먹은 근로자 7명은 사망 및 어지럼증 등 자각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첫 번째 커피포트로 끓인 물에 부동액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 근로자들은 부동액에 대한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해 사전에 부동액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부동액이 혼입된 드럼 및 운반용기에 명칭, 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 등이 포함된 경고표시 역시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부동액 섞인 물로 끓인 라면을 먹은 근로자들이 이상 증세를 일으켰고, 많이 먹은 한 근로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 🌸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실시

부동액을 사용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부동액에 대한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해 보존한다.

○ 부동액이 혼합된 드럼 및 운반용기에 위험 경고표시 부착

부동액이 혼입되어 있는 드럼 및 운반용기에 명칭 및 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 등이 포함된 경고표시를 부착해 사용한다.

<관련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72조 제5항 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제92조의5, 제92조의6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 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날씨가 추울수록 화기 사용 주의해야

인화성 액체가 묻은 옷에 불이 붙어 사망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난로 등을 사용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적은 자료를 게시하고 근로자를 교육해야 한다.

전기난로에 불 켜던 중 갑자기 불붙어

“어휴! 오늘도 열심히 하네.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괜찮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야죠. 하하.”

지난해 2월, 대구시에 위치한 알미늄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나홀로(가명) 씨는 연마기로 알미늄 술을 회전시키면서 연마재와 경유를 바른 걸레로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가 일하는 연마 공정은 원래 2인이 교대로 하던 공정이었으나 나씨가 원해 매일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5시간씩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재해 당일, 나홀로 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새벽 2시경부터 출근해 혼자 연마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8시경 선반작업자 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오전 9시까지 연마작업을 진행했다.

“어우~ 춥다. 몸 좀 녹이고 해야지.”

나홀로 씨가 전기난로에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선반작업자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씨의 몸에 불길이 타올랐다.

“불이야~!”

주변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분말소화기를 애용해 나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끈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처치를 한 후,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하고 말았다.

경유 묻은 옷 표면에 인화성 증기가 자연발화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7시간 동안의 연마작업을 하면서 나홀로 씨의 옷에 경유가 충분히 묻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상태에서 발열부 표면온도가 450℃ 이상 올라가는 전기스토브를 일정 시간 켜어 옷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자연발화되면서 전신 75%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초 목격자인 동료 근로자들이 갑자기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홀로 씨의 옷에 충분히 경유가 증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마재로 사용한 자동차용 경유의 인화점은 38℃ 이하이며, 자연발화점은 177℃ 이하이다.

결국, 나홀로 씨는 인화점 38℃의 경유가 묻어있는 옷을 입은 채로 몸을 녹이기 위해 전기스토브 앞에 일정 시간(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 이상 접근해 있다가 옷에 불이 붙어 사망하고 만 것이다. 🌸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경유의 위험성 고지 및 교육 실시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려면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을 적은 자료를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규정〉

○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항, 제7항,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깔려버린 안전

벌목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사망

나무를 벌목하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나무지를
의 4분의 1 이상의 수구를 만든 후 벌목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목작업
현장에서는 주변의 나무 등 방해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절차를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기계톱으로 절단한 나무가 몸쪽으로 쓰러져

지난해 1월, 김대충(가명) 씨는 전남에 위치한 표고버섯용 목재 생
산을 위한 벌목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작업은 밑에서부터 벌목
및 절동작업을 시작해 위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작업반장 1명이
작업현장을 감독하고, 근로자 5명이 작업을 수행했다.

오전 7시 30분경, 작업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기계톱 점검, 보호구
착용 및 작업지시 등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8시 10분경부터 각
자 배치된 작업 위치에서 경사면을 따라 작업장의 위쪽으로 벌목
작업을 시작했다.

“사장님께 보고하고 올 테니 일들하고 있어.”

8시 50분경 작업반장은 사업주에게 휴대전화로 작업 시작 보고
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가능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봐, 작업반장 갔다고 벌써 쉬는 거야? 어? 이봐 김씨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나무에 깔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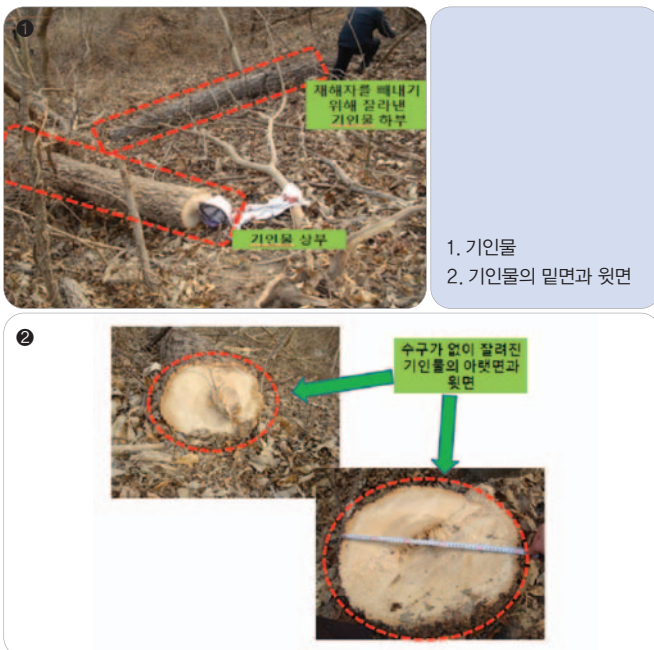
9시 00분경 김대충 씨 근처에서 작업하던 동료작업자가 피를 흘리며 나무에 깔린 김씨를 발견하고 주변 작업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작업자들이 김씨를 꺼내기 위해 기계톱으로 나무를 절단한 후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하고 말았다.

수구 내지 않는 등 작업 방법 부적절

동료작업자들의 진술과 나무에 수구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김대충 씨는 경사면이 급한 재해발생 현장(경사면 각도: 약 30~35도)에서 수구를 내지 않아도 나무가 비탈면을 향해 쓰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구를 내지 않은 채 벌목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무가 예상치 못하게 주변의 나무와 부딪히며 방향을 바꿔 김씨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가슴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인 나무를 벌목하는 경우에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든 후 벌목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김대충 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만 것이다. ❀

* 수구: 벌목할 때 나무의 베어 넘기는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절단하는 부분에 쐐기형상으로 미리 잘라낸 부분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작업방법의 개선

나무를 벌목하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나무지름의 4분의 1 이상의 수구를 만든 후 벌목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의 장애물을 제거한 후 벌목작업 실시(권장사항)

벌목하여 쓰러지는 나무가 주변의 나무나 구조물 등과의 간섭으로 넘어가는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한 후 벌목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규정>

○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의한 재해발생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제40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02-561-2871, www.ljlabor.com

동절기 넘어짐 · 미끄러짐 재해예방 대책

겨울철에는 두꺼운 작업복 착용으로 인한 행동의 부자연스러움과 눈 · 빙판 등으로 작업장 내 미끄러짐 · 넘어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미끄러짐 · 넘어짐 재해는 교통 사고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발생하는 등 일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미끄러짐 · 넘어짐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겨울철 눈길 · 빙판길에 따른 사고 증가

겨울철에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눈길 · 빙판길 등에서의 미끄러짐 · 넘어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서비스업 넘어짐 재해 66,629건 중 12,831건(19.3%)은 겨울철(12월~2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과 비나 눈이 내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 환경미화, 음식배달 및 택배원 등 야외 작업활동과 차량운행이 빈번한 근로자의 미끄러짐 · 넘어짐 사고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를 '미끄러짐 · 넘어짐 사고 주의 기간'으로 선정해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야외활동 근로자는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작업해야 한다. 다음에서 겨울철 미끄러짐 · 넘어짐 재해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자.

빙판길 미끄러짐

주요 위험요인



-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 양손에 물건을 들고 운반 중 미끄러짐
-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가다가 넘어짐

-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순찰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안전대책



-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는 즉시 제거한다.
- 이동 시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 등을 확인하며 걷는다.
- 이동 시 수시로 신발 바닥의 눈을 털어준다.
-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작업화를 착용한다.
- 작업 전 · 후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을 수시로 실시한다.

눈길 교통사고

주요 위험요인



- 택배 등 배달차량의 눈길 교통사고
- 눈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짐
- 택시 등 대중교통의 눈길 교통사고

안전대책



- 눈길 운전 시 사용할 체인 등의 도구를 갖추고 운행한다.
- 급경사 및 굽은 도로 운행 시는 속도를 줄인다.
- 차량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 운전 중 DMB 시청, 휴대폰 사용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한다.

눈으로 인한 넘어짐

주요 위험요인



- 청소 중 눈이 쌓인 바닥에 넘어짐
- 아파트 순찰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짐
- 물건 운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짐

안전대책



- 보행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한다.
- 미끄럼방지 안전화를 신는다.
- 작업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한복을 착용한다.
- 계단을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 간판을 잡고 이동한다.
- 작업공간에는 적정조명을 확보한다.

호주 산업안전청 산업안전보건 전략 2012-2022 발표



호주 산업안전청(SAFEWORK Australia)에서는 10년 단위로 발표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략 2012-2022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2년까지 호주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7개 분야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했다.

산업안전보건 전략 2012-2022의 목표는 규제당국, 업계, 노조, 기타 기구 및 정부의 주요 국가 활동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정부, 업계, 노조, 기타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각 조직 외에도 전문 협회, 이익집단 등 모두가 이 전략의 활동을 따르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현재 호주 근로자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2012-2022 전략은 국가 산업안전법 및 조직의 관련 정책,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전략안의 대 원칙은 직업,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잘 고안된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호주 근로자들의 생산적인 삶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호주 산업안전청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20% 감소, 1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 30% 감소, 1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근골격계질환 30%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www.safeworkaustralia.gov.au/.../AboutSafeWorkAustralia/.../WHSStrategyPC.aspx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목 순위 발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까지 산업안전보건청에서의 감독 결과 가장 많은 위반 항목들을 발표했다.

추락 위험 방지 위반에 이어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위반이 그 뒤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비계, 호흡기 보호, 사다리, 기계 방호 장치, 산업용 트럭, 전기, Lockout/Tagout, 전기 일반 등이 2012년 OSHA 위반 사항 Top 10에 들었다. ✚

■ 위반 사항 Top 10

순위	위반 사항	전체 위반 건수 (2011년 순위: 건수)
1	추락 방지 : 건설업과 고소작업 수행시 안전 시스템의 적정성, 추락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감독 등에 대한 상황의 적절한 시스템적 방안 마련	7,250 (1위 : 7,139)
2	화학물질의 위험성 : 작업장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되어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기준 준수, 또한 작업자에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포함.	4,696 (3위 : 6,538)
3	비계 : 이 기준은 비계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하였는가와 설계에 맞도록 제작되고 사용되는 지에 대한 비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을 포함. 사업주는 비계 또는 그 근처에서 작업중인 건설업 근로자의 추락과 물체의 낙하에 따른 재해를 예방해야 함.	3,814 (2위 : 7,069)
4	호흡기 보호 : 이 기준은 사업주가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 수립자의 요구사항, 사업장에 맞는 조치, 보호구의 선정, 근로자 교육, 적합성 시험, 의학적 평가, 보호구 사용, 보호구 세척과 유지 및 수리를 포함.	2,371 (4위 : 3,944)
5	사다리 : 이 기준은 모든 사다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의 준수를 포함	2,310 (8위 : 3,244)
6	기계 방호 장치 : 이 기준은 작업자와 다른 근로자를 작업점, 동력전달부, 침 비산등으로 인한 기계의 위험을 예방하는 방호 장치를 포함	2,097 (10위 : 2,728)
7	산업용 트럭 : 이 기준은 지게차, 전동 운반트럭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트럭들의 설계, 유지 및 작업을 포함, 또한 작업자의 교육을 포함.	1,993 (7위 : 3,432)
8	전기 : 이 기준은 전기 가구의 접지, 전선 및 절연 방호 조치 등을 포함.	1,744 (6위 : 3,584)
9	Lockout / Tagout : 기계 및 설비의 유지와 보수중 위험요인의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항목을 포함.	1,572 (5위 : 3,639)
10	전기 일반 : 이 기준은 전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안전 사항을 포함.	1,332 (9위 : 2,863)



고객 평가 태그 추천 행사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2월 12일 공단 본부에서 하반기 고객 평가 태그 경품 추천 행사를 가졌다. '고객 평가 태그'는 공단에서 발간하는 주요 안전보건미디어에 대해 평가를 하는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보다 많은 고객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경품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추천은 올해 하반기 동안 회수된 태그를 대상으로 교육미디어 실장 및 팀장의 입회하에 치러졌다. 추천을 통해 대상 1명, 은상 1명, 장려상 750명 등 총 752명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고객 평가 태그 경품 추천 이벤트 당첨자〉

대상(뉴아이패드): 신금순(서울 중랑구) 장려상(공단 기념품): 750명
 금상(디지털 카메라): 이성대(경남 진주시) * 상세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주지도원 '무재해 7배' 인증패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원장 안병준)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실에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대상으로 무재해 7배 달성 인증패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연간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안전교육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매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매년 안전관리실적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또 정기적인 안전점검, 안전 캠페인, 안전 및 보안 업무에 중점을 두고 법정 신규정기·관리감독자·특별안전교육 등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재해운동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무재해 목표 달성 시 격려금 지급 및 경영평가 시 가점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안병준 제주지도원장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단 한 건의 사고 없는 무재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지역본부 동절기 화재·폭발사고 예방 노·사·정 결의대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홍경표)는 지난해 12월 4일 제21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동절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

·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GS칼텍스 대구저유소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대구고용노동청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인화성물질 취급사업장 대표(30개소), 안전대행기관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정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재·폭발예방대책을 심층 논의했다. 특히 작업시작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조치를 유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환기설비, 방폭설비, 소화설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등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지"며 기본에 충실한 안전조치와 스스로 문제점을 예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창의적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2012년도 제5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기술지침 분야별 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장

순번	번호부여	안전의 명칭	제·개정·폐지
1	D-11-2012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2	P-118-2012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공정안전지침	제정
3	P-119-2012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4	P-120-2012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 기술지침	제정
5	P-121-2012	공기분리설비의 안전설계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	P-122-2012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별크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7	P-123-2012	공업용 가열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8	P-124-2012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9	P-125-2012	화학제품의 취급 등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10	P-126-2012	이황화탄소 드럼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11	P-127-2012	반도체 제조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12	P-128-2012	금속분진 취급 공정의 화재폭발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13	C-66-2012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14	C-67-2012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15	C-68-2012	블록식 보강토 옹벽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16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17	C-70-2012	냉동창고 단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18	C-71-2012	기성 콘크리트 파일 형태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19	C-72-2012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20	C-73-2012	강박스거더교량공사안전보건작업지침	제정
21	C-74-2012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정
22	H-91-2012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제정
23	H-92-2012	전기도급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 기술지침	제정
24	H-93-2012	병원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성질환에 대한 관리지침	제정
25	H-94-2012	구제역 등 방역작업 종사자 건강관리지침	제정
26	H-95-2012	만성폐쇄성 폐질환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제정
27	H-96-2012	작업장내의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조사지침	제정
28	H-97-2012	조혈기계 검사 이상근로자의 관리지침	제정
29	H-98-2012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침	제정
30	H-99-2012	일산화탄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31	H-100-2012	PCBs 폐기물 처리작업에서의 작업환경관리 기술지침	제정
32	H-101-2012	실험실 자체 정도관리 지침	제정
33	H-102-2012	발암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제정
34	H-103-2012	냉동설비 보수 기계실의 안전보건 작업지침	제정
35	H-104-2012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관리지침	제정
36	H-105-2012	은행출납사무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제정

순번	번호부여	안전의 명칭	제·개정·폐지
37	H-106-2012	골워킹기보조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제정
38	H-107-2012	호텔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제정
39	H-108-201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제정
40	W-21-2012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41	X-56-2012	생산시스템 생산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지침	제정
42	X-57-2012	생산시스템 리스크관리를 위한 원자재구매 지침	제정
43	X-58-201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제정
44	X-59-2012	생산시스템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개발 지침	제정
45	M-91-2012	타워크레인인의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46	M-126-2012	파쇄기의 방호초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47	M-129-2012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초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48	M-152-2012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49	M-153-2012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제정
50	M-154-201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탱크 제조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1	M-155-2012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2	M-156-2012	자동차 아래에서의 수리작업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제정
53	M-157-2012	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4	M-158-2012	팔레트의 안전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5	M-159-2012	수목작업에서의 굴착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6	M-160-2012	식품가공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7	M-161-2012	식품 포장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8	E-126-2012	폭발위험장소 구조물의 피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59	E-127-2012	제어 및 실험용 전기장비의 축전회로 시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0	E-128-2012	광섬유 비상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1	E-129-201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2	G-87-2012	고령근로자의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제정
63	G-88-2012	도로변 수목 관리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4	G-89-2012	숙박시설 객실청소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5	G-90-2012	운반구에 관한 안전지침	제정
66	G-91-2012	장애인 및 환자 이동용 호이스트 이용에 관한 안전지침	제정
67	G-92-2012	포대 취급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8	G-93-2012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69	G-94-20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70	G-95-2012	산업현장의 안전디자인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71	G-96-2012	인적오류 예방에 관한 인간공학적 안전보건관리 지침	제정

2012년도 11월 유효기간 만료 및 재검정 불합격

【보호구】

· 안전모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안전모	안모 제931호-1	(주)에스탑	SHH-9013	12-11-07
	안모 제933호-1	(주)성안세이브	SATTEA-7002	12-11-07
	안모 제934호-1	(주)성안세이브	SATTEM-7004	12-11-07

· 가족제안전화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가족제안전화	가안 제1951호-1	한스산업(주)	HS-41 포세이돈	12-11-11
	가안 제1958호-1	한양상사	슈퍼-40(공)	12-11-11
	가안 제1959호-1	한양상사	슈퍼리어 60	12-11-11
	가안 제1975호-1	(주)트렉스타	TS3-201	12-11-29

· 정전기안전화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정전기안전화	정안 제68호-1	(주)트렉스타	TS8-202	12-11-29

· 차광보안경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차광보안경	차안 제423호-1	(주)오토스광학	C-706B(#1.7)	12-11-18

· 플라스틱보안경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플라스틱보안경	프안 제448호-1	(주)오토스광학	B-803YS	12-11-18
	프안 제335호-1	(주)오토스광학	S-508V	12-11-29

· 용접보안면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용접보안면	용보 제186호-1	씨보레	씨보그라스 5000X-Protec(#9~#13)	12-11-25

· 일반보안면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일반보안면	일보 제161호-1	(주)오토스광학	F-72B(밝음)	12-11-21

· 방진마스크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진마스크	방진 제1013호-1	세진물산(주)	SKR-21B	12-11-12
	방진 제1014호-1	세진물산(주)	SKR-22-1B	12-11-12
	방진 제1016호-1	한국쓰리엠(주)	8840	12-11-12

· 방독마스크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독마스크	방독 제376호-1	세진물산(주)	SKG-21A	12-11-14

【방 폭 기 기】

· 전 동 기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 만료일자
삼상유도전동기	2007-1157-Q1	현대중공업(주)	HMQ3 633-26E	12-11-07
	2007-1160-Q1	(주)효성창원 3공장	EF(112M)	12-11-14
	2007-1161-Q1	(주)효성창원 3공장	EF(112M)	12-11-14
	2007-1162-Q1	(주)효성창원 3공장	EF(132S)	12-11-14
	2007-1172-Q1	현대중공업(주)	HME5 318-66E	12-11-22
	2007-1173-Q1	현대중공업(주)	HMQ3 405-88E	12-11-22
단상 이동식 배풍기	2007-1174-Q1	현대중공업(주)	HME5 352-46E	12-11-22
	2007-1177-Q1	삼화엔테크(주)	SPEF-300	12-11-27
삼상유도전동기	2007-2199-Q1X	SK 인천정유(주)	TIKE-FCCNW	12-11-29
	2007-2200-Q1X	SK 인천정유(주)	TIKE-FCCNW	12-11-29

· 제 어 기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 만료일자
Electro-Pneumatic Positioner	2007-1169-Q1	(주)메크로닉스	MEP-3000	12-11-21
	2007-1170-Q1	(주)메크로닉스	MEP-3000	12-11-21
Control Panel	2007-1175-Q1	동우엔지니어링	2007-DWIE-P03	12-11-25
	2007-1176-Q1	동우엔지니어링	2007-DWIE-P02	12-11-25

· 차 단 기 및 개 폐 기 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 만료일자
압력전송스위치	2007-1155-Q1	(주)한울인텍스	HW-PTS250	12-11-07
Radio Frequency Type Level Switch	2007-1163-Q1	(주)서진인스텍	SRF	12-11-18
Capacity Type Level Switch	2007-1164-Q1	(주)서진인스텍	SCAP	12-11-18
Vertical Magnetic Float Type Level Switch	2007-1165-Q1	(주)서진인스텍	SHM-2000	12-11-18
	2007-1166-Q1	(주)서진인스텍	SMC-95	12-11-18
온도조절스위치 (Ambient)	2007-2197-Q1X	(주)타이코썬덜컨트롤	AMC-1H	12-11-29
온도조절스위치 (Line)	2007-2198-Q1X	(주)타이코썬덜컨트롤	E507S-LS	12-11-29
Limit Switch	2007-2195-Q1	세봉센서(주)	VCX-5101-R	12-11-29
	2007-2196-Q1	세봉센서(주)	VCX-5001-R	12-11-29

· 조 명 기 구 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 만료일자
Exit Lighting	2007-1167-Q1	우창전기	FUFL-LED-S	12-11-20

· 계 측 기 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 만료일자
가스감지기	2007-1156-Q1	(주)한울인텍스	STS-11A	12-11-07
Micropulse linear displacement sensor	2007-2192-Q1X	(주)만희기전	BTL5	12-11-14
Conductivity Transmitter	2007-2193-Q1X	한국에머슨프로세스 매니지먼트(주)	5081-T	12-11-14
전자저울	2007-2194-Q1	에이엔디전자저울(주)	HV-15(60,200)KLEP	12-11-26

· 전 열 기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 만료일자
Power Connection Kit	2007-1158-Q1	일신산업전기(주)	HACC-PK-TBH-4P	12-11-07
End Seal Kit	2007-1159-Q1	일신산업전기(주)	HACC-EK-P	12-11-07
Junction Box	2007-1168-Q1	(주)우창전기산업	TB-61	12-11-20
TERMINAL BOX	2007-1171-Q1	나라전기	FTB	12-11-21

【방 호 장 치】

· 크 레 인

품명	합격번호	업체명	모델명	유효기간 만료일자
크레인 방호장치	2007-1028-J1	신한전자기기	SH-GHC10	12-11-26
	2007-1029-J1	KNF중공업(주)	KNF355i-OL-01	12-11-26
	2007-1030-J1	KNF중공업(주)	KNF355i-ML-01	12-12-17

* 안전인증 현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안전인증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mination Info

* 안전보건공단 비전과 전략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 전문기관

- 목표성과중심
- 협력관계중심
- 창의현장중심
- 사람참여중심

* 고객불편신고센터

TEL(국번없이) 1644-4544 FAX1644-4549

<http://www.kosha.or.kr/고객참여>

* 부정 · 비리 신고센터 운영

우리 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부정 ·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거나 부정 · 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을 때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검소한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설치장소 :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우편번호 403-711)
- 전 화 : (032) 5100-732~735
- 저희 공단 감사실 외에 지역본부장실 및 지도원장실도 부정 · 비리 신고센터입니다.



KOSHA 본부 ·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 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34-4) 032-510-05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34-4) 032-510-0761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042-869-0300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34-4) 032-510-0951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주)유한양행빌딩 14,15층 02-828-1600
서울북부지도원	서울 중구 칠패길 42(봉래동 1가) 우리빌딩 7,8층 02-3783-8300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15층 033-655-186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64-31) 051-520-0601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146(달동 615-8) 052-226-0510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055-269-0510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 055-371-750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00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번지) 054-271-2014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00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15(가정동 491번지) 032-570-7200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13층 031-259-7149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729-2) 센트럴웨딩홀 2층 031-481-7599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금곡동 106-2) 소곡회관 2층 031-785-3300
부천지도원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상동 538-3) 대신프라자3층 032-680-650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8, 9, 11층 062-949-8700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063-240-8500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전중앙로 35 061-689-4900
제주지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00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00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빌딩 3층 043-230-7111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0

Quiz Quiz

다른부분찾기



아래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 동봉된 <독자엽서>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때에는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을 꼭 남겨주세요.



국민 여러분!

안전 앞에
늘 겸손하세요!

조심조심
코리아

추천해주세요 산재예방 달인



산재예방 달인이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추천방법

인터넷 또는 우편(E-mail)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기간 및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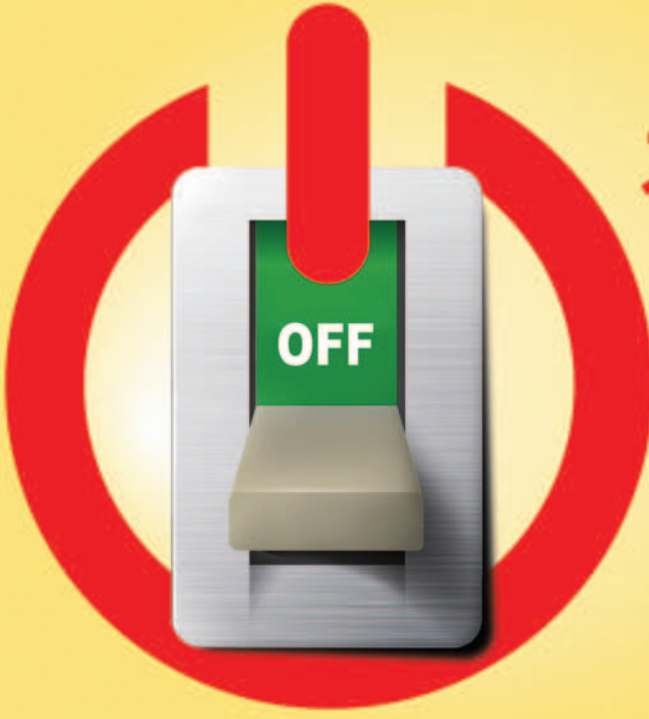
- 연중 수시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패를 수여
※ 산재예방유공자포상(매년 7월)시 가산점

추천대상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
※ 안전보건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신 분

문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산재예방정책과(전화 02-6922-0922, 09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기계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차단 확인!

- 机器装备/维护作业时
确认电源已切断!
- Pada Saat Pengerjaan Perbaikan/Perawatan Mesin
Pastikan Pemutusan Sumber Tenaga Listrik!
- Khi sửa chữa/bảo trì máy móc
Kiểm tra việc ngắt nguồn điện
- Repair and maintenance of machinery
Make sure the power is off.
- ระหว่างการซ่อมแซมและบำรุงรักษาเครื่องจักร
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ตัดกระแสไฟ!
- စက်ယန္တရား ပြုပြင်ဆင်နွှဲ
လျှပ်စစ် ပြတ်တောက်မှု ခံစားခြင်း
- ដោយធូលីដកស្រងឹត ដៃកម្រើកក្នុងអំឡុងពេល

1 전원 차단



- 切断电源
- ตัดกระแสไฟ
- လျှပ်စစ် ပြတ်တောက်ခြင်း
- ព្រាប់ភ្លើងអគ្គិសនី
- Pemutusan Sumber Tenaga Listrik
- Ngắt nguồn điện
- Shut the power off.

2 잠금장치 설치



- 安装安全锁
- ใส่กุญแจล็อก
- အဝိတ်လှုပ်တံတစ်ခု
- ដាក់តាំងប្រសព្វចាក់សោ
- Pemasangan Box Terkunci
- Lắp đặt thiết bị khóa
- Fasten the lock.

3 표지판 설치



- 设置提示板
- แขนงป้ายเตือน
- မှတ်ပေးဘုတ် ထားခြင်း
- ដាក់ក្តារស្តី
- Pemasangan Papan Tanda
- Lắp đặt bảng biểu thị
- Install a warning post.

실내 근육운동

00



1

옆구리 스트레칭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한쪽 손을 허리에 댄다.
- ② 한쪽 손을 귀에 붙이고 몸을 천천히 옆으로 늘려준다.
- ③ 상체를 옆으로 내린 상태에서 10~15초간 유지한다.
- ④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00

2



다리 운동

- 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린다.
- ②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통을 천천히 내려서 최대한 내린 상태를 유지한다.
- ③ ②번의 자세에서 10~15초간 유지한다.
- ④ 체력에 따라 반복 실시한다.

3



허리운동

- ① 고정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다리를 뒤쪽으로 끌어 올린다.
- ②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 ③ 반대쪽도 같이 반복해서 실시한다.
- ④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경우 공중에서 다리를 유지하는 시간을 줄인다.

4



복근 운동

- ① 누워서 한쪽 다리를 꼬아서 올려준다.
- ② 꼬아서 올린 무릎 위로 팔꿈치를 짚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왔다 내려온다.
- ③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④ 체력에 따라 반복 실시한다.

나를 지키는 안전보건 에너지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시리즈'

하나 안전보건 통합 애플리케이션



유용한 안전보건정보 여기 다 있네

- 모든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통합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안전보건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와 연동
- 속도 빠른 QR코드 리더기 제공

둘 위기탈출 응급조치



스마트폰 사용자의 필수품 응급조치 App

- 다양한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삽화로 제공
-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응급조치 의문사항 해결
- 생활 속 잘못된 운동법 등 재미있는 응급 상식 제공

셋 위기탈출 지식총전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안전보건 미디어 서재

- 안전보건 미디어로 꾸미는 나만의 서재 구성 기능 제공
- 매월 신규, 인기, 추천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책자, 리플릿, 동영상, 카툰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제공

넷 MSDS 요약정보



유해화학물질! 아는 것이 힘입니다

-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14,787건의 위험성, 응급조치, 누출시 조치 사항 등 제공
- 키워드 검색을 통한 편리한 검색기능 제공



‘우편 또는 팩스’ 로 지금 바로 설문엽서를 보내주세요~!

직장동료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노하우!

설문지를 여러 장 복사해서 동료와 같이 작성한 다음
한꺼번에 **팩스**로 보내세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질
취
선

2013. 01



은 상

고급 디지털 카메라



장려상

소정의 기념품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

2013. 01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2. 수집 · 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셔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3.1.1~2014.12.31

부평우체국 승인
제40006호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

설 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

2013. 01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2. 수집 · 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셔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3.1.1~2014.12.31

부평우체국 승인
제40006호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고객평가> 담당자 앞

-

설문엽서를 보내주시시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
엽서는 더 좋은 「안전보건」을 만드
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엽서
를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대상(1명) : 아이패드
(16GB, Wifi 버전)

금상(1명) : 카메라

장려상(600명) : 소정의 기념품

* 경품 내용과 추첨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소중한 의견으로 더 좋은 월간 「안전보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설문엽서를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아이패드2의 주인공~

독자의 소리

◎ 이번 호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월간 <안전보건>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을 알려주세요.

Quiz Quiz

다른 부분 찾기



지난호 정답



2012년 12월호 당첨자 명단

문경준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서해윤 -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민정호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국진화 - 전북 정읍시 고부농단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설문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032-502-0049)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디자인·편집: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내용 구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본 자료가 여러분의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 위생 및 유서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건물종합관리업
- 교육서비스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건설업
- 임업
- 음식업
- 기타산업

규모

- 5인미만
- 50 ~ 99인
- 300인 이상
- 5 ~ 49인
- 100 ~ 299인

귀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경영층,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기타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 (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서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Fax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월호